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구위탁사업

제주이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I)

▣ 부록 : 제주이해 교육과정 ▣

2018. 12. 28.

제주대학교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귀 청에서 의뢰한 『제주이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연구 용역 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12. 28.

책임연구원 : 제주대학교 교수 강 봉 수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차례 ▣

연구요약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방법	2
제2장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내의 정체성 교육 사례 : 경상북도	5
2. 외국의 정체성 교육 사례	9
3. 제주이해 교육과정 개발에 주는 시사점	16
제3장 제주이해 교육과정	
1. 성격	37
2. 목표	44
3. 내용체계	49
4.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61
5. 학습내용별 성취기준	65
6. 교수-학습 방법	86
7. 평가 및 활용	90
제4장 교수-학습 자료	
1. 초등학교용	[별책]
2. 중학교용	[별책]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22
2. 제언 및 후속 과제	23
참고문헌	26
<부록 1> 제주이해 교육과정	
<부록 2> 교수-학습 자료 : 초등학교용	
<부록 3> 교수-학습 자료 : 중학교용	

연구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용역사업인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2018. 2. 28, 책임연구원 강봉수, 이하 ‘위 연구’로 칭함)의 결과에 따른 후속 연구임.
- ‘위 연구’에서는 제주정체성을 탐구하고 교육영역을 개발하였고, 후속 연구과제로 1) 제주 정체성 교육과정의 정교한 설계, 2) 교수-학습자료 혹은 교재의 개발 등을 제안한 바 있음. 또한 ‘위 연구’에서는 “제주정체성 교육과정” 명칭사용을 재고하여 “제주이해 교육과정” 혹은 “제주학 교육과정”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초등 2019년)부터 모든 학교급에 적용될 국가수준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면서, 1) 초, 중 제주이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영역별, 주제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데 두고 있음.

■ 연구 방법

- 문헌 및 사례연구, 현장답사 및 조사연구
- 교육영역별, 학교급별 연구자 워크숍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연구 기간 : 2018년 8월 16일 ~ 2018년 12월 28일

제2장 국내외 사례 검토

▣ 경상북도의 정체성 교육 사례

•경상북도는 7년 이상을 경북정체성포럼을 구성하여 경북정체성을 정립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왔음.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시대별로 4가지로 압축하여 (1) 세계와 호흡하고 삼국통일을 이끈 신라의 **화랑정신**(고대), (2) 심오한 성찰과 현실참여를 중시한 **선비정신**(중세), (3)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 일어나 몸을 던진 **호국정신**(근대), (4)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인 **새마을정신**(현대)으로 제시하였음.

•‘**경북정체성포럼**’을 발족하여 5여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시대별 정신을 아우르는 공통의 정체성을 찾아내었음. **울곧음(정의)**, **신바람(신명)**, **어울림(화의)**, **나아감(창신)**의 4가지가 그것임. 이후 대대적인 홍보과 교육을 전개하였음.

•경상북도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정체성 정립을 위한 연구와 홍보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2010~2017, 7년).
- 정체성 정립을 위한 연구에 광범위한 조직과 인력의 투여
- 경상북도 도지사의 일관된 관심과 적극적 지원
- 정체성 연구의 이론적 문제, 관주도의 사업추진 등의 한계도 있음.

▣ 외국의 정체성 교육 사례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초기에는 공히 이질집단에 대하여 동화주의적 정체성 교육을 시도하였음.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인권운동이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면서 그들은 이질적 집단을 인정하고 다문화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음.

- 외국의 정체성 교육이 다문화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은 제주이해 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음.

제3장 제주이해 교육과정

■ 성격

- 제주이해 교육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초·중학생들이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제주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 그리고 제주인이 지닌 고유한 자질로서의 제주정신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정체성 교육임.

■ 목표

-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추구하는 인간상	세계 속의 제주인임을 자각하고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사람,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 총괄목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주인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름.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 공동체 역량을 길러서 궁극적으로 제주이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을 목표로 함.

□ 내용체계

•제주의 자연과 환경

교육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제주의 자연과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마을의 모습 2) 제주의 위치 3) 제주의 중심지 4) 자연 경관과 주민생활 2. 제주의 형성과 지형·지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산폭발과 제주 형성 2) 지역 탐방 3) 한라산의 식생 분포 3. 세계자연유산 제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자연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 지역 탐방 4. 꽃자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꽃자왈의 특징과 분포 2) 꽃자왈의 가치 3) 지역 탐방 5. 제주의 현재와 미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보호지역 2) 우리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 3) 자랑스러운 제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의 위치 및 영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의 위치 2) 제주의 영역 2. 제주의 자연환경 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 2) 지형·지질 3) 수문 4) 생물 3. 한라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질과 지형경관 2) 기후와 식생 3) 백록담 4) 한라산 국립공원 4. 오름 및 용암동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산지형 2) 오름의 유형과 분포 3) 용암동굴의 유형과 분포 5. 꽃자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암류와 꽃자왈 2) 꽃자왈의 분포 3) 꽃자왈의 기능 6. 제주의 해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안선과 해안 유형 2) 암석해안 3) 모래해안

		7. 제주의 국제보호지역 1)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2) 세계자연유산 제주 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4) 제주의 람사르협약 습지
--	--	--

•제주의 신화와 전설

교육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제주의 신화와 전설	1. 전설로 말하는 제주의 자연 1) 설문대할망 2) 산과 오름이야기 2. 신화로 말하는 제주 이야기 1) 탐라건국과 삼성신화 2) 천지창조 신화와 대별왕 소별왕 3) 서천꽃밭 꽃감관 한락궁이 4) 운명의 여신 가문장아기 5) 아기 할망 삼승할망 6) 염라대왕의 저승사자 강림도령 7) 농사의 신 자청비와 문도령 8) 송당 마을의 신 백주또와 소천국 3. 신화와 전설에 깃든 제주인의 삶 1)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신 2) 전설 속 제주인의 삶 4. 이야기의 탄생과 전승 1) 제주신화와 전설 문화유산 2) 제주 신화와 전설을 찾아서	1. 전설로 연결하는 제주의 자연 1) 설문대할망 2) 산과 오름 3) 물과 해안 2. 신화와 전설에 새겨진 제주의 역사. 인물 1) 삼성신화와 제주 2)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 3) 감목관 김덕과 제주의 말 4) 고전적과 제주의 풍수 3. 신화에서 발견하는 제주인의 삶 1) 삼승할망신화: 생명관(탄생) 2) 차사신화: 저승관(죽음) 3) 삼공신화: 결혼관 4) 세경신화: 생산관 4. 신화로 풀어내는 제주의 문화 1) 천지왕신화와 문화창조 2) 문전신화와 제사문화 3) 멩감신화와 인정문화 4) 칠머리당 영등굿과 세계문화유산

•제주의 말과 글

교육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제주의 말과 글	<p>1. 듣기 / 말하기</p> <p>1) 제주어로 인사 나누기 2) 제주어 가족 호칭 3) 제주어 신체 부위 명칭 4) 제주어의 맛과 멋 - 재치만점 제주 속담</p> <p>2. 읽기</p> <p>1) 제주어로 된 이야기의 읽기 경험과 느낌 나누기 2) 제주어로 된 글의 세부 내용 간추리기</p> <p>3. 쓰기</p> <p>1) 문학작품을 제주어로 바꾸어 쓰기 2) 제주어를 활용한 글쓰기</p> <p>4. 문법</p> <p>1) 제주어의 높임법과 언어 예절 2) 제주어 소중히 여기기</p>	<p>1. 듣기 / 말하기</p> <p>1) 영화, 드라마 속 한 장면을 제주어로 말하기 2) 일상생활 속 제주어 말하기 3) 제주어 대화 상황 이해하기</p> <p>2. 읽기</p> <p>1) 제주어로 창작된 문학작품 감상하기 2)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글 읽기</p> <p>3. 쓰기</p> <p>1) 문학작품을 제주어로 바꾸어 쓰기 2) 제주를 소개하는 글쓰기</p> <p>4. 문법</p> <p>1) 제주어 동사, 형용사 이해하기 2) 표준어와 제주어 이해하기 3) 제주어의 관용표현 이해하기</p>

•제주의 역사

교육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제주의 역사	<p>1. 내 주변의 역사</p> <p>1) 과거와 오늘날의 가족생활 이해 2) 과거와 오늘날 학교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 3) 주변에 있는 건물, 길, 기념비, 터 등의 이름에 담긴 역사 찾기</p> <p>2. 제주에 살았던 사람들</p> <p>1) 제주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 선사 시대 사람들의 생활</p>	<p>1. 제주의 선사 문화</p> <p>1) 제주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2) 고산리에서 시작된 신석기 문화 3) 상모리 청동기 문화인의 도래 4) 초기 철기 문화와 고인돌</p> <p>2. 탐라시대의 제주</p> <p>1) 삼성신화, 탐라의 건국이야기 2) 탐라, 해상국가로의 발전 3) 탐라, 고려에 복속</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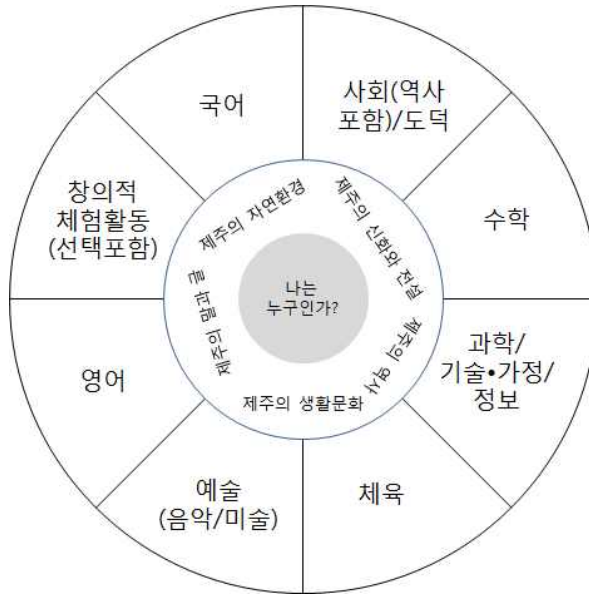
<p>2) 제주에 나라를 만든 사람들: 탐라국 설화와 탐라인의 생활</p> <p>3) 제주 이주와 다양해진 사람들: 몽골족, 유배인, 4·3사건시 이주민, 한국전쟁기 이주민, 산업화 시기 이 주민 등을 중심으로 인구 구성원과 규모 살펴보기</p> <p>4) 제주의 중심지 변화와 역사적 사 건 관련성 이해하기</p> <p>3. 역사 속의 제주라는 장소</p> <p>1) 잃어버린 탐라의 섬</p> <p>2) 진상품 공급지: 고려의 관리 파 견과 조선의 지배 정책(1인10억과 출륙금지령)</p> <p>3) 말의 고장과 목축업의 발달</p> <p>4) 유배지로서 제주</p> <p>5) 1만 8천신의 고향으로서 제주</p> <p>6) 왜구 방어 거점지</p> <p>7) 병참기지로서 제주: 일제의 병 참기지화 정책</p> <p>8)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고</p> <p>9)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p> <p>4. 제주의 삶과 제주인의 행동</p> <p>1) 제주의 민란: 양수의 난, 강제검 의 난, 방성철의 난, 이재수의 난</p> <p>2) 삼별초 항쟁과 제주 사람들</p> <p>3) 원의 지배와 목호의 난</p> <p>4) 의병과 항일 독립 운동</p> <p>5) 해방과 제주4.3</p> <p>6) 한국전쟁과 제주</p> <p>7) 제주의 민주화 운동</p> <p>8) 한반도 평화와 제주</p>	<p>3. 고려와 원에 장악된 제주</p> <p>1) 고려 지방관의 파견과 양수의 난</p> <p>2) 제주인의 삼별초항쟁에 대한 인식</p> <p>3) 원의 지배와 목축 그리고 불교</p> <p>4) 목호의 난에 가담한 제주 사람들</p> <p>4. 3읍에 파견된 조선의 지방관</p> <p>1) 잦은 왜구의 침략과 방어시설</p> <p>2) 말 진상의 중심, 1인 10억</p> <p>3) 출륙 금지령, 유배의 땅</p> <p>4) 민중의 저항</p> <p>5. 1만 8천신의 고향</p> <p>1) 가난을 짊어지고 살았던 제주인</p> <p>2) 여신이 많은 제주의 신당</p> <p>3) 유교정책과 남성중심의 포제</p> <p>6. 일제 강점기 제주인의 삶과 저항</p> <p>1) 일제의 식민통치와 병참기지화 정책</p> <p>2) 제주인의 출가 노동</p> <p>3) 제주인의 항일 운동</p> <p>7.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주 4.3</p> <p>1) 불완전한 해방</p> <p>2) 제주4·3, 그 아픔의 기억</p> <p>3) 인권·평화의 역사로의 제주4·3 인식</p> <p>8. 제주4·3이후 민주화운동</p> <p>1) 삶의 터전을 지킨 사람들</p> <p>2) 제주에서의 민주화운동</p> <p>3) 민주화운동과 제주4·3 진상규명</p> <p>9. 우리 마을(학교) 역사쓰기</p> <p>1) 나의 역사쓰기</p> <p>2) 우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p> <p>3) 내가 그리는 우리 마을의 미래</p>
--	--

•제주의 생활문화

교육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p>제주의 생활문화</p>	<p>1. 의.식.주 생활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의 전통적 의복문화 2) 제주의 전통적 음식문화 3) 제주의 전통적 주거문화 <p>2. 가족제도와 권당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의 전통적 가족제도 2) 제주의 전통적 가족들의 생활 모습 3) 권당의 의미와 권당문화 <p>3. ‘수놓음’ 공동체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의 전통적 마을의 모습 2) 제주의 전통적 마을 사람들의 생활모습 3) 제주 특유의 ‘수놓음’ 문화 4) 접, 계, 향약 문화 <p>4. 해녀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녀들의 삶의 방식 2) 해녀문화 체험 3) 해녀문화의 보존가치 	<p>1. 의.식.주 생활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의 전통적 의복과 갈옷문화 2) 제주의 전통적 음식과 식사방식 3) 제주의 전통적 민가의 모습 4) 제주의 의식주문화와 육지부의 그것과의 비교 <p>2. 가족제도와 권당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가족제도와 친족문화 2) 제주의 전통적 가족제도 3) 권당문화의 의미 4)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제주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비교 <p>3. ‘수놓음’ 공동체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 마을의 형성배경 및 마을의 구조 2) 제주 전통의 마을제 및 미풍양속, 민속놀이 3) ‘수놓음’문화와 제주의 자연적 여건 4) 접, 계, 향약 문화 <p>4. 해녀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녀의 탄생 배경 2) 해녀들의 삶의 방식 3) 해녀들의 항일운동 4) 해녀문화의 의미와 보존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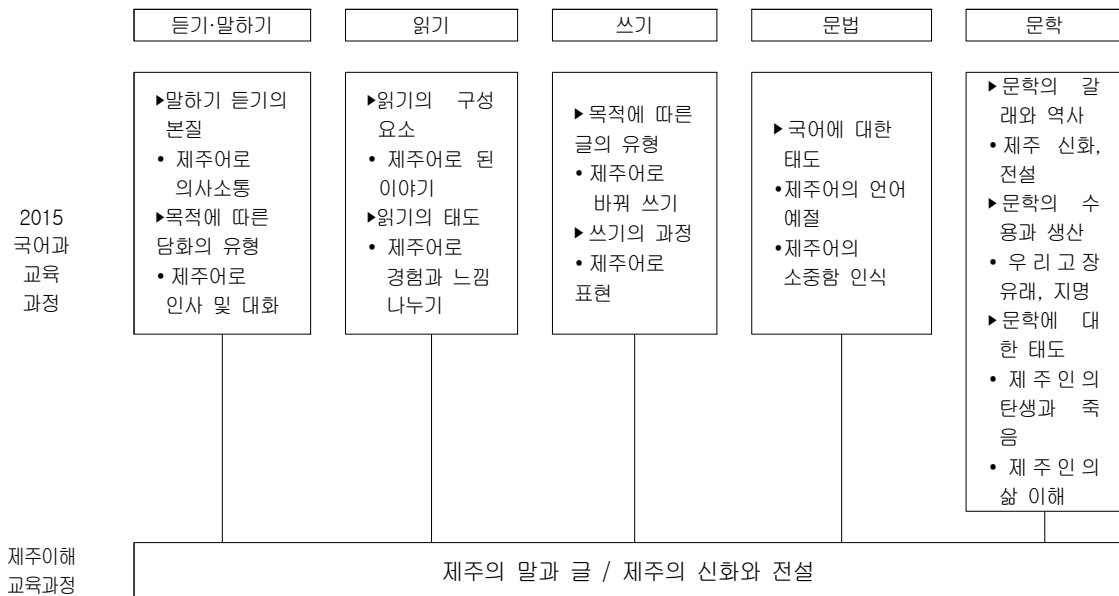
■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중핵교육과정으로서의 제주이해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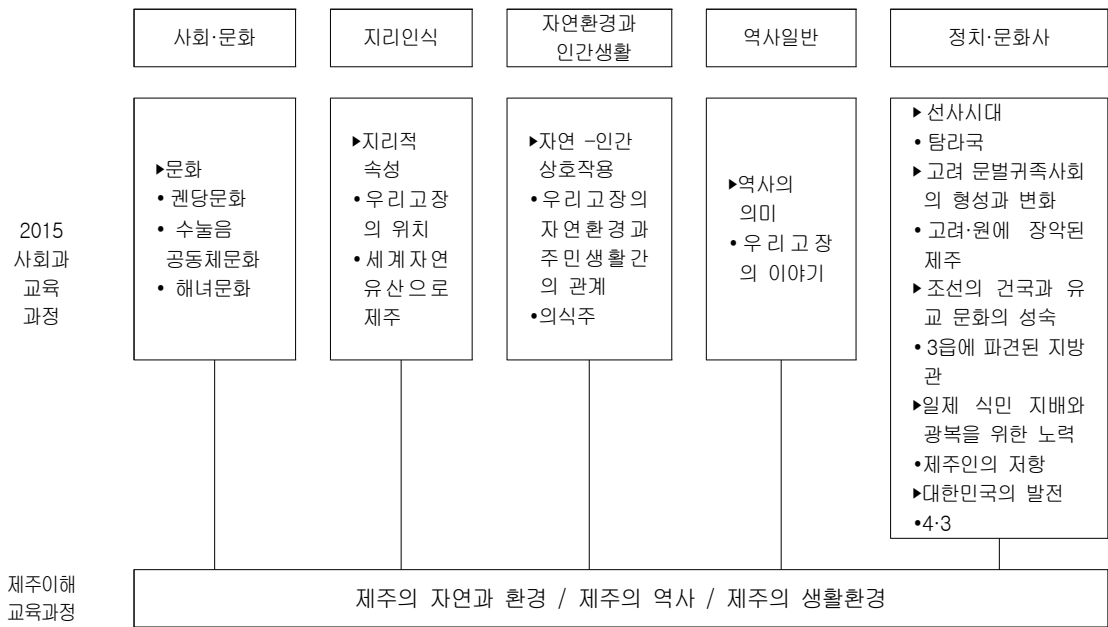


[그림 1] 중핵교육과정으로서의 제주이해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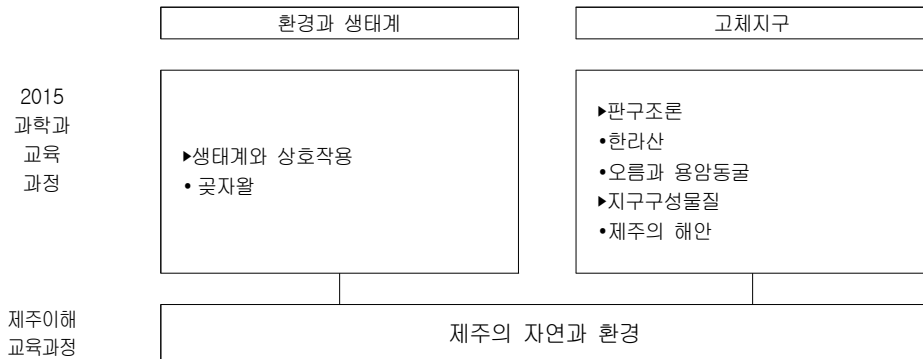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제주이해 교육과정



[그림 2] 제주이해 교육과정과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연관성



[그림 3] 제주이해 교육과정과 2015 사회과 교육과정의 연관성



[그림 4] 제주이해 교육과정과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관성

■ 학습내용별 성취기준

- 교육영역별, 학교급별 내용체계에 따라 2015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와 연계하면서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음.

▣ 교수-학습 방법

- 제주이해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교수-학습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제주이해 교육은 학생 중심의 탐구식 교수-학습 방법과 기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중핵교육과정으로 제주이해 교육은 제주도내 학습자들이 우리 주변의 사회·자연 환경에 관심을 통해 각 교과와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교수-학습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찾는 프로젝트 학습법이나, 도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탐방이나 견학 등 직접 체험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을 권장함.

▣ 평가 및 활용

- 제주이해 교육은 별도의 교과로 편성·운영되지 않기에 제주이해 교육이라는 지필평가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결과는 성취기준의 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교수-학습의 개선 및 교사의 자기 평가와 자율 장학에 활용함. 나아가 학생들의 제주이해 및 제주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을 돕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제4장 교수-학습 자료

■ 초등학교

- 교육영역별로 10차시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수업과정안, 활동지, 참고자료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제시하였음.

■ 중학교

- 교육영역별로 10차시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수업과정안, 활동지, 참고자료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제시하였음.

제5장 결론 및 제언

■ 연구의 제한점

- 제주시해 교육과정 개발의 한계
 - 선례가 없음, 목표설정의 추상성, 내용선정의 제한
- 교수-학습자료 개발의 한계
 - 지면과 시간의 제약, 동영상과 음성자료 미비,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육방안
- 학교 현장 적용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한계

■ 제언 및 후속 과제

- 학교 현장 적용 및 교육방안 탐색
- 교원 연수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관련 참고도서 개발 및 온라인 자료실 운영

제주이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주이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인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2018. 2. 28, 책임연구원 강봉수, 이하 ‘위 연구’로 칭함)의 결과에 따른 후속 연구임.
- ‘위 연구’에서는 1) 정체성 및 정체성 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국내외의 정체성 교육 사례검토, 3) 제주정체성의 내용 연구 등을 바탕으로, 4) 제주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영역을 설정하였는데, ① 제주인과 제주정체성, ② 제주의 자연과 환경, ③ 제주의 신화와 전설, ④ 제주의 말과 글, ⑤ 제주의 역사, ⑥ 제주의 생활문화 등으로 개발하고, 각 영역에 따른 교육내용을 선정하였음.
- ‘위 연구’는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주정체성 교육과정을 예비적으로 설계하기도 하였으나 제주정체성 교육영역 개발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위 연구’에서는 후속과제로 1) 제주정체성 교육과정의 정교한 설계, 2) 교수-학습자료 혹은 교재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음. 또한 ‘위 연구’에서는 “제주정체성 교육과정” 명칭사용을 재고하여 “제주이해 교육과정” 혹은 “제주학 교육과정”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 연구’의 결과 및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자체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연구인 「초·중학교 제주이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연구용역 사업(이하 ‘동사업’)을 발주하고, 이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강봉수)에 의뢰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동사업’을 발주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

한 사업이라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사업’의 목적을 아래처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1) “초, 중학교 제주이해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제주 문화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정립을 통해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 2) “2015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 중학교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이해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제주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동사업’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과업으로 “2017년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 중 제주이해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설계, 주제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제시하였음.

- ‘동사업’의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사업목적과 세부과업에 유의하여 이 연구는 그 목적을 아래처럼 세 가지로 명확히 정하고자 함.
 - 1) 초, 중 제주이해 교육과정 개발
 - 2) 국가수준의 2015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보
 - 3)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영역별, 주제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2. 연구 방법

가. 문헌 및 사례 연구

- 교육과정이론 관련 문헌 연구
- 국가수준 2015 교육과정 총론 및 과목별 교육과정 문헌 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 교육영역별 교과내용학 및 교과교육학 문헌 연구

나. 현장 답사 및 조사 연구

- 제주의 자연과 환경 현장 답사 및 조사연구
- 제주의 신화와 전설, 제주방언 관련 현장 조사 연구
- 제주문화 및 역사 유물유적지 현장답사 및 조사연구

다. 교육영역별, 학교급별 워크숍을 통한 연구

- 교육영역별 워크숍: 수시
- 학교급별 워크숍: 수시

라. 보고회를 통한 연구보완

- 중간보고회
 - 12월 7일(금) 오후 4시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3327세미나실 외

	발표 주제		장소	발표 및 토론자	
				발표자	토론자
제1부	제주이해 교육과정 총론		3327 세미나실	강봉수	토론자 전 원
제2부	영역별,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제주의 자연과 환경	3317 강의실	손명철	정광중 (제주교대)
		제주의 신화와 전설	3318 강의실	강순희	송문석 (학생문화원)
		제주의 말과 글	3319 강의실	김순자	문덕찬 (노형중교장)
		제주의 역사	3320 강의실	박찬식	홍기표 (전성균관대)
		제주의 생활문화	3321 강의실	김일방	양정필 (제주인문대)

- 중간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를 보완하였음.

○ 최종보고회

- 12월 19일(수) 오후 3시 / 제주학생문화원

발표 주제		발표 및 토론자	
		발표자	토론자
제주이해 교육과정 총론		강봉수	김민호 (제주대학교수)
영역별,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제주의 자연과 환경	손명철	장승련 (구엄초교장)
	제주의 신화와 전설	현승환	송창선 (한림중교감)
	제주의 말과 글	신우봉	송승호
	제주의 역사	박찬식	(제주여중교사) 김여선
	제주의 생활문화	김일방	(참교육제주학부 모회 대표)

-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를 보완하였음.

제2장 국내외 사례 검토¹⁾

1. 국내의 정체성 교육 사례 : 경상북도

- 국내에서 지역정체성을 정립하고 교육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지역사례로는 경상북도일 것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았지만 지역적 수준의 교육과정 상에 반영되어 접근하고 있을 뿐, 경상북도처럼 별도로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제와 교육을 실천하는 지역사례는 거의 없어 보임. 따라서 여기서는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경상북도는 7년 이상을 경북정체성포럼을 구성하여 경북정체성을 정립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왔음.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배경은 현직인 김관용 도지사가 지난 2006년 7월에 29대 도지사가 된 이래 현재까지 3선에 걸쳐 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해왔기 때문으로 판단됨.
- 경북정체성 정립의 출발은 2010년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한 『“경북 혼” 재발견』이라는 연구용역결과에서 비롯되었음. (경북정체성포럼 백서, 2017: 15).
 -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시대별로 4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는데, (1) 세계와 호흡하고 삼국통일을 이끈 신라의 **화랑정신**(고대), (2) 심오한 성찰과 현실참여를 중시한 **선비정신**(중세), (3)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 일어나 몸을 던진 **호국정신**(근대), (4)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인 새마을정신**(현대)이 그것임.
-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2011년 12월에 ‘**경북정체성포럼**’을 구성하고 발족하였음(경북정체성포럼 백서, 2017: 16).
 - 포럼위원은 중앙과 지역의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언론, 의회 등 전문그룹으로 구성하였음.
 - 먼저, 4개 분과(화랑분과, 선비분과, 호국분과, 새마을분과)를 조직하여 각 분과별

1) 이 장의 국내외 사례검토는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2. 28), 51~65쪽에서 가져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음.

경북정체성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2011~2012년).

- 분과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대별 정신을 아우르는 공통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음(2013년).
- 경북정체성포럼은 경북정체성을 4가지(울곧음, 신바람, 어울림, 나아감)로 집약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체계화하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집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행하였음(2014년).

○ 경북정체성포럼이 정립한 경북정체성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경북의 혼, 한국정신의 창, 2017: 19~23).

경상북도의 정체성

경북정체성	의미	역사적 사례
울곧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사로운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사회와 겨레, 나라와 같은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서기석에는 신라 청년들이 나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한 사실이 새겨져 있다. •신라의 화랑들은 삼국통일을 위해 임전무퇴의 정신을 실천했다. •조선 통치 이념인 성리학에는 울곧은 마음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경북 선비들의 정신이 녹아있다. •이황과 후학들이 세운 퇴계학은 성리학이 조선 향촌 사회에 널리 퍼지게 함으로써 선비들이 울곧은 마음으로 큰 뜻을 펼치도록 하였다.
정의로움 (正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곧은 사람은 나라가 어려움에 당하였을 때 먼저 나서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 잡는데 주적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격렬한 저항을 기록하였다. •독재정권에 맞선 4.19혁명을 이끌어 낸 2.28운동의 발상지이다. •경북에서 발상된 새마을운동은 가난에 대한 체념과 패배의식을 의지로 이겨 후손들에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는 울곧음이 깃들어 있다.
신바람 신명 (神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일이나 상황에 열정이 생기고 흥에 겨운 나머지 마치 신의 기운이 내린 듯한 격정적인 상황 •좌절이나 낙담이 신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랑의 풍류도에는 산천을 돌면서 마음과 몸을 닦고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흥겨운 기운과 열정을 내면화한 신라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홀로 때로는 더불어 자연을 즐기던 선비들의 풍류문화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기쁨을 찾는 신명이 녹아 있다.

	으로 전환되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힘을 불러일으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앞두고 주저하지 않고 신명나게 달려들어 자신과 주변인들에게도 기운을 북돋우는 경북인의 신바람이 큰 힘을 발휘했다.
어울림 화의 (和議)	•남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 •결코 홀로 옳다거나 혼자 잘살겠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곧 어울림 정신이다.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의 3대 사상을 모두 수용하여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정신 유산인 화랑도를 낳았다. •삼국통일 이후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수용하여 대화합을 이루었다. •상주에 세워진 조선 최초 사설 대중의료원인 존애원은 13개 문종이 문쳐 의료 구출에 힘쓰면서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마음을 실천하였다. •독립운동사에서 이념의 분화가 극심해지던 시기에 사회주의까지 수용하여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경북인들이 앞장섰다.
나아감 창신 (創新)	•지킬 가치가 있는 체질을 지켜가면서도 변화기에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 •고난의 시기를 맞을 때 이를 이겨내는 힘은 곧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새벽을 여는 정신에서 나온다.	•신라 서라벌은 당시 지리적으로 외진 곳이었지만 육상과 해상을 통해 외래 문물을 적극 수용하였고, 신라인의 개방적 성향과 화랑의 진취성은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경북 선비들은 고려 말기에 유학 이념에 따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앞장서 치열한 고민을 하였다. •나라가 기울던 무렵 경북에서는 삶의 자세에서 유림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서양문화를 수용하여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한 혁신유림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협동학교를 비롯하여 경북 곳곳에 학교를 세우며 독립운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안동 출신 김동삼, 이상룡은 새로운 항일투쟁 방식인 만주지역 독립군 기지 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대에서는 새마을운동 등으로 산업화의 선두에 서며, 경제발전을 이끌어 냈다.

○ 이상의 4가지 정신을 요약하여 ‘정신의창’(正神議創)이라 부르고, 표제어로 “**울곧은 마음으로 신바람 나게, 함께 어울려, 앞장서 열어가자.**”고 홍보하고 있음. 또한 정신의 창(創)을 창(窓)으로 바꾸어, 이 창을 통해 한국문화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이 창을 통해 세계문화를 내다볼 수 있다는 뜻을 담아 ‘경북정신은 한국정신의

창'으로 규정하고 있음. 경북정체성성포럼 백서와 이론서의 책명을 『경북의 魂, 한국정신의 窓』이라 붙인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

○ 이후 경북정체성포럼은 홍보 확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2014~2016년)하는 한편, 연구학교 지정 및 강사 양성(2014~2017년), 공무원 교육용 동영상 제작 보급(2015년),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 공급(경북북도교육연구원, 2015~2017년) 등을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정책을 실행해 왔음.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지난 7년 동안의 성과(경북정체성 연구, 정립 및 교재개발, 홍보 및 교육)를 총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였음(2017년 12월 19일).

- '경북이 혼' 교육 강사 양성 연수(2015~2017년)
- 경북정체성 알리기 체험 박람회(2016. 10. 29)
- 공통 강의 교재 및 보조교재 개발 : 『경북의 혼』(2016년) 등
- 공무원 교육용 영상 제작 지원
- 홍보용 제작 : 홍보용 책자 발간, 리플렛, 수첩 및 볼펜, 교통카드, 장바구니 등
- 언론 홍보 : 다큐멘터리 제작, 일간지 광고 및 기획 연재 등
- 주요 기관 교육 및 홍보 :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청, 독립운동기념관, 여성정책개발원 등
- 연계사업 : 뿌리알기 사업, 길을 여는 사업, 글로벌 사업 등

○ 특히, 2017년에는 경북정체성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음.

- 초등 5개교 : 기북초(포항), 풍산초(안동), 청도초(청도), 금장초(경주), 인평초(칠곡)
- 중등 3개교 : 영주여중(영주), 길주중(안동), 경산여중(경산)
- 각 학교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체성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임. 예컨대 경산여중의 경우 경북권에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청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새마을운동에 반영된 경북정체성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실천하였음. 경산여중의 경우, 경북정체성 교육의 핵심내용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경산여자중학교 2017학년도 경북의 혼과 함께하는 더불어 잘 살아가는 학교 풍토 조성,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사업 중간점검 자료, 2017: 5).

경산여자중학교의 경북정체성 교육

경북정체성	성격	새마을정신의 뿌리
화랑의 공동체정신	세계와 호흡하고 삼국통일을 이끈 신라의 화랑정신	‘잘 살아보자’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같은 맥락
선비의 개혁정신	심오한 성찰과 현실 참여를 중시한 선비정신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개혁하고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는 새마을정신은 경북 선비의 개혁정신에서 계승
호국의 나라사랑정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 일어나 몸을 던진 호국정신	가난 때문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한마음 한뜻으로 일으키겠다는 새마을 5정신과 같은 맥락
새마을정신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경북을 중심으로 한 한민족 고유의 정신을 계승

- 경북정체성포럼은『경북정체성포럼 백서』에서 경북정체성의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처럼 의미심장한 언표로 끝을 맺고 있음.
 - “경북의 혼, 경북의 정신은 2010년대 한 순간에만 존재할 것은 아니다. 경상북도가 이를 정신으로 살려나가면, 이 정신이 역사를 관통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오래토록 생명력을 갖고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북의 혼은 경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정신적 동력이 되리라 기대한다.”(경북정체성포럼 백서, 2017: 228).

2. 외국의 정체성 교육 사례

가. 미국

-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일찍부터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여왔음.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다인종, 다민족의 문화를 서로 인정하는 다문화교육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하여왔음.
- 미국의 정체성 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 네티비즘(nativism)에 토대한 동화주의, 용광로 이론을 거쳐 민족연구와 집단간 교육운동, 다문화 교육으로 진화 등의 과

정을 거쳐 왔음(장인실, 2008: 163~170).

- **네티비즘에 토대한 동화주의** : 네티비즘이란 구이민자들이 신이민자들의 흥수를 멈추려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정체성 교육은 구이민자 중심의 청교도 문화를 이식하려는 정책이었음. 1620년을 기점으로 미국에 처음 건너온 구이민자들은 영국 중심의 북부와 서부 유럽인들이었고 그로부터 영국의 백인 청교도 문화가 미국문화로 뿌리내리기 시작하였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와 동부 등 다른 유럽지역의 신이주민이 들어오면서 신규 이주민들 간에 문화적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초기 구이민자들은 네티비즘을 강조하면서 신이주민들에 대해 백인중심 청교도 문화의 이식을 강요하는 동화주의(assimilation) 교육정책을 추진하였음.

- **용광로 이론** : 20세기 이후에도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미국사회의 이민자들이 계속하여 늘어났고, 동화주의 교육정책이 실패하자 이를 용광로(Melting Pot) 이론에 토대한 교육정책으로 대처하였음. 용광로 이론은 여러 나라의 문화를 용광로에 녹여 남미 문화도, 영국 문화도, 동양 문화도 아닌 종합된 하나의 새로운 동질문화를 형성하려는 개념이었고 교육정책이었음. 그러나 용광로 이론은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하여 갈등이 야기되었음. 현실에서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백인 청교도 문화가 소수인종 문화를 용해시켜 백인 문화는 우위에, 다른 문화는 하위에 머무르게 했기 때문임. 결국 동화주의의 연장선상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

- **민족연구와 집단 간 교육운동** :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야기된 미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집단 간 교육운동(inter group education movement)을 야기 시켰음. 인종적 갈등과 폭동이 일어나고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다양한 민족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토대한 집단 간 교육 운동으로까지 확장되었음. 이러한 개혁운동은 다른 민족문화를 부정하던 백인 단체들에게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고려하게 하였음.

- **다문화 교육으로의 진화** : 집단 간 교육운동은 현재의 다문화 교육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음.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정체성 교육보다는 점차적으로 다문화 교육으로 바뀌어왔음.

나. 일본

- 일본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 고립된 자연환경 속에서 생겨난 이른바 ‘섬나라 근성’과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나라라는 문화적 인식이 일본 역사를 통해 일본인의 뇌리에 각인되어왔다고 여김. 이러한 관점에서 일찍부터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일본정체성 교육을 시켜왔음. 그러나 지난 세기 전후로부터 세계화가 진행되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일본정체성의 위기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정체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이하는 東京都教職員研修センター, 2002, 2003).
- 일본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어린이 교육을 둘러싼 곤란한 상황에 근거하여 향후 일본을 책임질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교육으로서 ‘세계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주제로 그 기본적인 생각과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려는 연구를 추진함.
- 선행연구를 토대로 세계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6개의 구성요소(자기 확립, 가정 귀속의식, 학교 귀속의식, 지역 귀속의식, 일본인으로서의 의식, 세계 일원으로서의 의식)로 정리함.
- 6개 구성요소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능력, 의식, 경험 등에 근거하여 7개의 육성 시점(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감성, 공헌의식, 규범의식, 일본문화의 이해, 경험, 이국문화의 이해.경험)을 설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실태와 요소간의 관계를 조사함.
- 세계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자기 확립은 일본인으로서의 의식의 발달과 관계가 있고, 일본인으로서의 의식과 세계 일원으로서의 의식은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소통 능력, 감성, 문제해결 능력은 세계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는 데 중요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교육을 위한 제언으로서 ① 학교에서는 자기 확립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교육목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② 자기 확립과 관계가 있는 일본인으로서의 의식을 키우기 위해 학교에서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기회를 더욱 늘려야 함, ③ 일본인으로서의 의식과 세계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키우는 교육을 서로 관련시키면서 감성과 소통 능력을 발휘하도록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 ④ 가정 및 지역과 연계된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실시하여 귀속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 ⑤ 자기 확립과 관련된 자기 표현력을 키우기 위해 아동 및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지도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⑥ 아동 및 학생이 스스로 학습과정을 반복하고 새로운 목표나 과제를 갖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⑦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 체험을 더욱 충실하게 실시하여 공헌의식을 키움과 동시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고 있음.
- 세계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제시하고 실천을 도모하는 후속 연구도 진행함.
- 일상적인 교육활동 가운데 의도적으로 기회와 장을 마련하여 정체성 정립을 도모한다는 시점에서, 목표로 하는 인간상을 일본과 세계의 역사 및 문화·전통을 중시하고 동시에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를 사랑하며, 자심감과 긍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평화적인 국제사회의 형성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설정함.
-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복수의 교과목에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채택한 검증수업을 실시하고, 검증수업의 분석과 고찰, 학습지도 요령의 목표나 내용 분석 시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관점을 설정하며 지향하는 어린이상을 명확히 함.
- 이를 토대로 검증수업을 개선하고 수업의 유효성을 살려 단원의 재구성을 피함으로써 각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업 모델안을 작성함.

- 수업 모델안의 사례로서는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의 ‘시를 즐기자’,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의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과의 ‘자신의 고향을 표현해 보자’,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의 ‘축제를 통해 타인과의 유대를 중시하는 마음을 키우자’, 중학교 2학년 특별활동인 진로학습의 ‘자신을 알자’ 등을 제시함.
- 한편, 일본은 일찍부터 일본정체성 교육을 해온 반면에 자기와는 다른 이질적인 집단에게는 ‘동화’를 강요하는 교육을 진행해 왔음(김동광, 2008: 195~219). 일본에는 단일민족이라는 원주민 외에 내지(内地) 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등지에 살고 있는 부라쿠민, 아이누, 오키나와인들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일본에 이주하여 정착해 살고 있는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화교인 등이 있으며, 지난 세기말을 전후하여 인도차이나 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들이 늘어왔음.
 - 내지 식민지인들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동화주의적 정체성 교육을 해왔음.
 - 재일한국인(조선인)과 화교인에 대해서도 황국신민화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폈지만, 재일한국인(조선인)과 화교인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는 와중에서도 잃어버렸던 민족의 고유성을 되찾고 또 유지하기 위해 민족학교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민족정체성 교육을 실시하여왔음.
 - 1980년대 이후에 세계화 현상과 함께 다양한 외국인이 이주가 늘면서부터 그들에 대해 동화주의적 교육을 하는 한편, 다문화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

다. 중국

-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임. 한족외의 55개 민족을 소수민족이라 부르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인구는 1억 600만 명으로 전국 총인구수의 8.41%를 차지하고 있음. 이렇게 볼 때 중국은 한족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전체 영토의 63.7%에 달함. 이들 소수민족은 대부분 변강(邊疆)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 역사와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음. 심지어 중국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암암리에 분리 독립

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들도 있으며, 망명정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도 있음. 그러나 신중국을 성립한 이후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이라는 민족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분리 독립에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음(이하는 안경식, 2008: 223~251).

○ 그러나 중국이 추진하는 '단 하나의 중국'의 민족정책은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와 동화주의적 정책이 아님. 오히려 중국은 '다원일체'(多元一體)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토대하여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라는 신중화주의를 추진하고 있음. 즉, 이것은 다민족 상호 간의 이주와 융합을 거쳐 각 민족이 다른 민족의 문화전통을 받아들여 축적하고 변강을 개발하여 중국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외적의 침입에 공동으로 대처해온 역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임.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소수민족 정책을 강화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는 연구와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물론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문화대혁명기(1966~1976)까지는 불가능했음. 이때까지는 중국도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에 토대한 동화를 소수민족에게 강요해왔음. 그러나 개혁·개방기(1977~)를 거치면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 1978년에 제정된 신헌법에서는 각 민족 고유의 언어·문자·풍속·습관에 대한 폭넓은 자유 부여, 민족구역 자치기관의 적절한 수의 민족대표 선출 허용, 자치기관이 각 민족의 정치·경제자치 조례의 제정,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소수민족 교육도 관련법의 제정과 부서를 설치하는 등 각 소수민족의 자체적인 정체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1980년대의 소수민족 교육정책은, 첫째 민족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건립하되 한족 지역의 교육방법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었으며, 둘째 각 민족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민족교육에 적합한 계획을 제정했으며, 셋째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지원과 소수민족 교육의 자력갱생이 함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음(김정호, 2001:39).

○ 2002년에 발표된 '민족교육발전을 가속화하는 개혁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기본 방침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① 민족교육의 개혁과 발전은 실사구시 정신을 견지하여야 하고 철저히 현실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발전의 계획이나 교육 개혁의 단계, 교육 목표 요구, 학교 설립의 원칙, 교수 용어, 교육과정의 개설, 학제 등에서 민족과 현지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② 종교와 국민교육의 상호 분리 원칙을 견지한다. 헌법 등 법률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해서 국민교육에 간여하지 못하며, 어떤 형식으로도 학교에서 종교를 선전하지 못한다. ③ 민족지구의 자력갱생을 도모하되, 발달된 지역 및 관련 고등교육 기관과 민족 교육 기관이 결연을 맺어 민족지역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킨다. ④ 일관된 준비로 골고루 배려하며 중점 사항이 드러나게 처리한다. 즉, 미개발된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과 개발된 동·중부 지역의 교육 사이에 협조를 강화한다. 또 소수민족과 서부 지역에서 현대적 원격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민족교육의 경계를 넘는 발전을 실현한다.

○ 2002년 말 현재까지의 소수민족 교육의 성과에 대한 중국 교육부의 발표 자료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학생, 교직원 및 전임교사의 수 증가
- 국가 교육 재정의 확충
- '양기'(기초교육과 문자해득교육) 목표의 달성
- 소수민족 고등교육 인재 양성
- 소수민족 전임교사 양성
- 이중 언어 수업의 강화
- 교육 결연의 실시
- 초·중등학교에서 민족단건 교육 실시
- 지방정부의 민족교육 활동 중시
- 이 밖에 서부지역, 특히 티베트와 신강 지구의 교육에는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의 소수민족 교육정책은 다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신중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국가주의 교육이고 동화주의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임.

3. 제주이해 교육과정 개발에 주는 시사점

가. 경상북도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정체성 정립을 위한 연구와 홍보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
 - 경상북도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연구와 홍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로 무려 7년에 걸쳐 분과별 연구와 토론회, 공청회, 다양한 홍보 전략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 경북정체성포럼이 구성(2011. 12)된 이래 포럼운영의 주요 과정을 보면,
 - 4개 분과 조직과 분과별 연구(2012~2015)
 - 통합위원회 구성과 답안 찾기(2013~2014)
 - 도민과 공무원 등 설문조사(2013)
 - ‘경북의 혼, 한국 정신의 창’ 도출(2014)
 - 집필위원회 구성과 이론편 출판(2014~2015)
 - 홍보 확산 위원회 구성과 운영(2014~2016)
 - 연구학교 지정 및 강사 양성(2014~2017)
 - 공무원 교육용 동영상 제작 보급(2015)
 -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 공급(경상북도교육연구원, 2015~2017)
 - 백서 집필위원회 구성과 집필(2016~2017)
- 정체성 정립을 위한 연구에 광범위한 조직과 인력의 투여
 - 정체성 정립을 위한 조직으로 경북정체성포럼을 구성하고, 그 예하에 4개 분과(화랑분과, 선비분과, 호국분과, 새마을분과)를 두고, 4개 분과를 통괄하는 통합위원회를 두는 등 체계적인 조직을 꾸리고 접근하였음.

- 각 분과위마다 11~17명에 이르는 지역의 교수, 연구원, 문학인, 언론인 등 다양한 각계의 전문가들을 연구 인력으로 참여토록 하였음.
- 필요할 때마다 외부의 전문가나 교수를 초빙하여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었고, 해외 사례의 조사와 연수도 하였음.

○ 경상북도 도지사의 일관된 관심과 적극적 지원

- 현직인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2006년 7월에 29대 도지사가 된 이래 30대, 31대에 걸쳐 무려 3선 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음. 경북정체성의 정립과 교육은 그의 공약이었고, 3선의 재직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려 이 공약의 실현에 헌신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예산과 조직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경상북도 교육청과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 사업을 진행하였음.

○ 이상의 점들은 향후 제주정체성의 정립을 해나가는 데도 참고해야 할 사항임.

○ 한편, 경북정체성 정립의 출발인 2010년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시대별로 4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는데, **화랑정신(고대)**, **선비정신(중세)**, **호국정신(근대)**, **새마을정신(현대)**이 그것임.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정체성포럼은 시대별 정신을 아우르는 공통의 정체성을 찾는 연구와 토론을 거친 끝에 경북정체성을 4가지(**울곧음, 신바람, 어울림, 나아감**)로 정립하였음.

- 그러니까 시대별 정신(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의 밑바탕에는 공통으로 울곧음, 신바람, 어울림, 나아감의 정신이 깔려있다고 보는 것임.
- 경북정체성포럼은 지역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연환경과 역사환경라고 보면서(경북정체성포럼백서, 2017: 112), 경상북도의 자연지리적 조건, 인구학적 특성, 역사적 경험과 역사 속에 경북을 빛낸 위인들의 사상과 실천정신, 경북인들의 생활문화 등을 탐색하여 4가지 정체성을 정립하였음. 이러한 관점은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연구가 교육영역을 선정하는 데에 시사하는 측면이 있음.

○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 측면의 시사점도 있음.

- 경북정체성포럼을 구성하고 그들이 정체성 정립 과제를 주도했지만, 아무래도 도와 도지사가 의지가 적극 반영된 측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지나치게 관주도적인 사업의 추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정치적 동기와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깃들기 마련임. 이를테면, 새마을정신이 경북의 정신이고 순기능적 기능을 발휘했을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대별 정신의 바탕에 놓여 있는 공통의 정신을 수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찾아냈고 실제 그것이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한 정신일지라도 이를 이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음.
- 지역의 정신은 긍정적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만 부정적 역기능의 측면도 있는 것임. 경북의 4가지 정신은 긍정적 순기능만을 강조하고 그 반대의 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연구의 한계일 것임.
- 경북정체성포럼은 경북정체성의 확립과 보급의 기대효과로 경상북도의 가치를 드높이고, 도민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새천년 경북의 정신적 토대를 확립하며, 한국 미래사회의 정신적 좌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인류의 정신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경북정체성포럼백서, 2017: 15). 경상북도의 노력은 분명 이러한 기대효과를 낳는데 기여할 것임. 그러나 이를 위해 관주도적인 전 방위적 홍보와 교육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음.

나.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이 연구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는 제한적이고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체성교육을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검토하지 못하였음. 자료접근의 한계가 있었음, 한편 외국의 경우 별도로 정체성 교육을 하기보다는 지역수준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접근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한적이거나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돌아보면, 최근의 경향은 대체로 다문화 교육을 통한 다중적 정체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물론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음. 미국, 일본, 중국 공히 이질집단에 대하여 동화주의적 정체성 교육을 시도하였음.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인권운동이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면서 그들은 이질적 집단을 인정하고 다문화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의 정체성 교육은 동화주의의 유혹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짐.
- 미국의 경우는 가장 다문화 교육이 발달할 곳이지만 여전히 인종적 차별이 없지 않고 위대한 미국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일본의 경우는 내지 식민지(오키나와인 등), 올드커머(oldcomer: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화교 등), 뉴커머(newcomer: 인도차이나 난민 등)를 구별하여 동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이 있음.
 - 중국의 경우는 소수민족의 자치와 교육의 자율성을 가장 높이 인정해주는 듯 하지만, 이는 다분히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 신중화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의 정체성 교육이 다문화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은 제주의해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음. 우리의 제주의해 교육도 제주정체성의 순종을 찾아서 자라나는 세대나 이주민들에게 주입하거나 동화시키려는 교육이어서는 안 될 것임. 다문화와 세계화라는 신태그마와 접목하는 제주인의 정체성은 확대된 의미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ies)의 확립과 아울러 각기 소속되는 공동체의 공동선의 달성에 기여하는 자질인 ‘다중적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s)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제3장 제주이해 교육과정

※ 부록 1 참조

1. 성격
2. 목표
 - 1) 총괄 목표
 - 2) 학교급별 목표
 - 3) 교육영역별 목표
3. 내용체계
 - 1) 제주의 자연과 환경
 - 2) 제주의 신화와 전설
 - 3) 제주의 말과 글
 - 4) 제주의 역사
 - 5) 제주의 생활문화
4.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1) 중핵 교육과정으로서의 제주이해 교육과정
 - 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제주이해 교육과정
5. 학습내용별 성취기준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6. 교수-학습 방법
7. 평가 및 활용

제4장 교수-학습자료

※ 부록 2(초등학교), 3(중학교) 참조

1. 초등학교

(영역별 주제 10 선정, 수업과정안, 활동지, 참고자료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 1) 제주의 자연과 환경
- 2) 제주의 신화와 전설
- 3) 제주의 말과 글
- 4) 제주의 역사
- 5) 제주의 생활문화

2. 중학교

(영역별 주제 10 선정, 수업과정안, 활동지, 참고자료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 1) 제주의 자연과 환경
- 2) 제주의 신화와 전설
- 3) 제주의 말과 글
- 4) 제주의 역사
- 5) 제주의 생활문화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가. 제주이해 교육과정 개발의 한계

- 지역적 수준에서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행한 선행사례가 거의 없음. 국내에서 경상도의 사례가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독립된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음. 선행사례가 없는 교육과정을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다보니 제한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을 것임.
- 이 교육과정의 성격을 부여하고, 학교급별·교육영역별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다분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음. 이는 현재 제주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인지적, 심리적 발달수준을 진단할 수 없는 점에서 비롯된 한계라 할 것임.
-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교육영역별 내용선정을 하였으나 이에 포함되지 못한 제주문화의 고유함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제주문화의 고유함에 해당하지만 내용선정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포함할 수 없었던 한계도 있음. 예컨대, 제주민요, 목축문화 등의 예를 들 수 있음.

나. 교수-학습자료 개발의 한계

- 교육영역별로 각각 10차시에 해당하는 학습주제에 대해 교수-학습과정 안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보조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관련 참고자료 목록을 제시하였지만, 지면과 시간을 고려하다 보니 충분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글문서, 그림과 도표, 사진자료 등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기 때

문에 보다 현장감 있고 입체적이고 활동적인 동영상이나 음성 자료 등을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특히 제주의 말과 글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교육영역별 10차시의 주제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주제들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 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은 개별 담당 교사들의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음.

다. 학교 현장 적용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한계

- 단기 연구과제의 한계로서, 개발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를 직접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음.
- 교수-학습과정 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은 초·중등 교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보다 광범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음.

2. 제언 및 후속 과제

가. 학교 현장 적용 및 교육방안 탐색

- 제주이해 교육과정은 별도의 교과로 개발한 것은 아님. 그러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교육방안이 더 적절한지 숙고할 필요가 있음. 2017년도에 수행한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에서는 교육방안으로 1) 정규 교육과정 외에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수업하는 방안, 2) 정규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 수업시간에 반영하여 수업하는 방안, 3)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방안, 4)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기간에 수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음. 교사들의 수업시수 확보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교목으로 지정하여 팀티칭

방식의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는 초·중학생들을 위해 개발한 것이지만, 유치원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치원 과정에서는 개발된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응용하여 별도의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 새로운 교육과정이 증가하는 것은 아무리 의미 있고 필요한 교육과정이라 해도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인식됨. 따라서 모두에게 학습 부담을 덜어주는 최적의 교육 방안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과제일 수밖에 없고, 현장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적 수행으로 일임되어야 할 과제로 보임.

나. 교원 연수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제주이해 교육과정에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연수가 필수적임. 학교별·교육영역별로 자발적 참여교사를 모집하고, 특정기간 동안 교사연수를 통하여 제주이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영역별 교수학습 내용이해,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방법, 교수학습 방법 및 기법 등을 연수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제주이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수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참고도서 개발 및 온라인 자료실 운영

- 현재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는 모든 성취기준과 교육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분치 못함. 초등과 중학생 수준에 적합한 읽을거리 교재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특히 교사용 참고도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제주이해 교육과정 매뉴얼을 설정하고 교육영역별 자료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료실에는 제주이해 교육과정, 교육영역별 교수-학습 자료, 다양한 참고 문헌 및 체험학습 공간안내 등을 탑재할 수 있을 것임.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 강봉수(2018). 제주정체성으로써 ‘제주정신’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제주문화문법. 제주
도연구. 제50집. (사)제주학회.
- 강봉수·김태호·강정식·하명실·김대영(2018).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 연구용역 최
종보고서.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 강정식 외(2016). 아시아신화여행 : 신화, 끝없는 이야기를 창조하다. 서울: 실천문학
사.
- 강정식(200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
학원 박사논문.
- 강정식(2008).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서울: 보고서.
- 강제훈(2014). 조선중엽 김만일의 현마업적과 관직 제수. 역사와 담론. 호서사학회.
- 경상북도(2017). 경북의 魂, 한국정신의 窓 - 경북정체성포럼백서.
- 고기원(1997). 제주도의 지하수 부존특성과 서귀포층의 수문지질학적 관련성. 부산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양숙 외(2012). 제주인의 지혜와 맛, 제주전통향토음식. 제주특별자치도.
- 고재환(2002/2003).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 고정균(2000). 한라산 고산식물의 생태생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희범(2013). 이것이 제주다. 경기도: 단비.
- 고희영(2015). 물숨. 나남.
- 고희영(2017). 엄마는 해녀입니다. 난다.
- 공우석(1999). 한라산의 수직적 기온 분포와 고산식물의 온도적 범위. 대한지리학회
지, 34.
- 공우석(2007). 우리 식물의 지리와 생태. 서울: 지오북.
- 꽃자왈공유화재단(2011). 꽃자왈생태체험 교육자료.
- 국립제주박물관(2011). 용천동굴의 신비.
- 국토지리정보원(2013).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 국토지리정보원(2015).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 권혁재(1998). **자연지리학**. 서울: 법문사.
- 권현숙 외(2018).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토론 수업**. 학교도서관저널.
- 김동광(2008). 일본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안경식 외 6인 공저.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 김동욱·고부자 편(1977). 의식주.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김동현(2017). 2000년대 이후 문화이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김두헌(1949). **조선가족제도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김문홍(1994). 제주의 육상식물.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편). **제주의 자연생태계**.
- 김범훈(2009). **제주도 용암동굴 들여다보기**. 제주: 각.
- 김범훈·김태호(2007). 제주도 용암동굴의 보존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
- 김봉찬(2004). 제주 곶자왈의 생태적 의미와 가치. **곶자왈 보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김순이(2016). **제주신화**. 서울: 여름언덕
- 김순이·표성준(2012).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서울: 여름언덕.
- 김아람(2017). 한국전쟁기 제주 피난과 이주, 그리고 정착.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김영돈 외(1983).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제주도.
-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일순 외(2015). 제주도 마을 향약(규약)의 내용과 특성 분석. **제주도연구**, 44, 제주학회, p. 141.
- 김정기·김홍식(1977). 주생활.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김종업 외(1979). **탐라정신탐구세미나**. 제주대학탐라연구소.
- 김태호(1997).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18.
- 김태호(2001). 한라산 백록담 화구저의 유상구조토. **대한지리학회지**, 36.
- 김태호(2002). 제주도 해안의 지형경관과 보전. **자연보존**, 119.

- 김태호(2009). 제주도 산지습지의 지형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6.
- 김태호(2012). 용암류 특성에 의한 제주도 폭포의 유형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
- 김항원(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항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제주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
- 김헌선·현용준·강정식(2006).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서울: 보고서.
- 김형효(1994). 한국문화의 생리와 병리에 대한 철학적 담론. 김형효 외 4인 공저. **한국문화의 진단과 21세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형훈(2016).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나무발전소.
- 농촌진흥청(1976). **정밀토양도 제주도**.
-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8). **수놓음 정신으로 육아를 함께하다: 제주 육아정책**.
- 문무병 외(2001). **제주도 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 문쌍후(2011). **아름다운 우리 전통 천연염색 배우기**. 미진사.
- 문정봉(1994). **풍속무음(상·하)**. 제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박승필.(1985). 제주도 측화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30.
- 박원배(2010). **제주 물 용천수의 효율적인 관리·보전 방안모색**. 제주발전연구원.
- 박찬식(2008). **4·3과 제주 역사**. 제주: 각.
- 성읍마을회(2012). **성읍마을지**.
- 성주현(2008). **일제강점기 민족종교의 비밀결사와 독립운동자금 모금운동**
- 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5).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 제주특별자치도.
-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2015). **2015 세계자연유산 제주 거문오름**.
- 손영운(2006). **신나는 우리 땅 과학 탐사**. 뜨인돌 어린이.
- 손인석(2005). **제주도의 천연동굴**. 서울: 나우출판사.
- 손진태(1930). **조선신가유편**. 서울: 향토문화사.
- 송문석(2018). **신화비밀코드**. 서울: 푸른사상.
- 송병언(1999). 정짓거리 有·無를 중심으로 본 동·서부 제주민가의 차이. **제주인의 생활문화와 환경**. 제주학회 21주년 제1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송상조(2014). **제주방언 형태론에 관한 연구 논문 고찰**.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 송성대(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 제주문화.
-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각.
- 송시태(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인철(1992). **한국의 사회구조: 미분화 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서울: 문덕사.
- 신행철(1998).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서울: 한울.
- 안경식(2008). 중국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안경식 외 6인 공저.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 안용산(2010). **제주도 만장굴의 용암 공급지와 형성과정**.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용산(2016). 고문헌에 기록된 제주도 최후기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암석학회지**, 25.
- 안용산·손영관·강순석·전용문·최형순(2015). 제주도 곳자왈 형성의 주요 원인. **지질학회지**, 51.
- 안중기·김태호(2015). 제주도 중산간지대의 지표수 이용시설에 대한 수문지형학적 접근. **한국지형학회지**, 22.
- 양상호(2014). **제주 주거, 건축문화의 이해**. 제주문화의 인문학이야기 강의자료. (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 양용진(2014). **제주의 향토(전통) 음식문화**. 제주문화의 인문학이야기 강의자료. (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 양전형(2015). **굴매**. 제주: Gak(각).
- 염미경(2011).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해남촌’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제주도연구** 제35집. (사)제주학회.
- 염미경(2018).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의 지역 정착과 사회연결망. **제주도연구** 제49집. (사)제주학회.
- 오영주(1999). 제주 향토음식 문화와 관광 상품화 방안. **제주인의 생활문화와 환경**. 제주학회 21주년 제1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오영주(2017). 원대명초 몽골족 제주이주 연구.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오창명(2017). 제주의 언어. **제주학개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2018).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우표 발행**.

- 유철인(1995).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유홍준(2012).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7**. 서울: 창비.
- 윤석훈·조성권(2006). 제주도 서귀포층의 퇴적상과 퇴적환경. **지질학회지**, 42.
- 윤성효·고정선·강순석(2002). 백록담 분화구 일대 화산암류의 화산지질학적 연구, **한라산연구소 조사연구보고서**, 1.
- 윤용택(2010). 제주섬 생태문화의 현대적 의미, **탐라문화**, 37, pp. 339-340.
- 윤용택(2014).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제주 생활문화 100년**. 제주: 제주문화원.
- 윤용혁(2014). **삼별초-무인정권, 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서울: 해안.
- 윤원태(1998). **한국의 전통초가**. 재원.
- 이경화·안미선(2004).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전승. **아동학회지**. 25호. 한국아동학회,
- 이기춘 외 공저(2001).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도2동지편찬위원회(2009). **이도2동지**.
- 이동영(1994). 제주도의 화산활동사, 제주도(편). **한국의 영산 한라산**.
- 이문원·원종관·이동영·박계현·김문섭(1994). 제주도 남사면 화산암류의 화산층서 및 암석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30.
- 이문호(2017). **제주 권담-권당에 대한 4차산업혁명의 사회·물리적 초연결층**.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지, 17(3)
- 이상훈(2013). 여몽연합군의삼별초 진압과 고려군의위상 변화. **군사논단** 제73호, pp.172~191.
- 이영권(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 이영권(2005). **새로 쓰는 제주사**. 서울: 휴먼니스트.
- 이즈미 세이치, 김종철 옮김(2014). **제주도 1935-1965, 일본 문화인류학자의 30년에 걸친 제주도보고서**. 서울: 여름언덕.
- 이창기(1992).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환경; 도전·적응·초월의 메커니즘. **제주도 연구**. 9. 제주도연구회.
- 이창기(1993).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 **사회문화논집**, 8, 사회문화영남학회.
- 이창기(1995).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 **제주사회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 장인실(2008). 미국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안경식 외 6인 공저.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역락,

전경수(1994). **문화의 이해.** 서울: 일지사.

전연술(1993). **제주도에 감수과.** 신라출판사.

전용문·안웅산·류춘길·강순석·송시태(2012). 제주도 꽃자왈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고찰: 예비 연구결과. **지질학회지**, 48.

정수복(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 생각의 나무.

정승철(2000). 제주 방언의 음운론. **탐라문화** 2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정승철(2014).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 : ‘ㅇ’ 관련 업적을 중심으로.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정은희(2016). **제주 이주민의 역사.** 제주: 서귀포문화원.

정은희(2017). 제주 이주민의 역사와 현재적 지점.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8), **화해와 상생-제주4·3위원회 백서**
제주4·3평화재단(2016), **제주4·3 바로알기**

제주4·3사건 진상조사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꽃자왈공유화재단·제주특별자치도. **제주꽃자왈도립공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2016). **나도 이제 제주사람이우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94), **풍속무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대학교·부산대학교·난대산림연구소(2005). **한라산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벽붕괴 방지방안.**

제주대학교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서울: 보고서,

제주도(1997). **제주의 오름.**

제주도(1999). **제주의 물 용천수.**

제주도(2000a). **제주도 지하수 보전·관리계획 보고서.**

제주도(2000b). **서귀포·하효리도폭 지질보고서.**

제주도(2000c).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

제주도(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도(2006). **제주도지.**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2000).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제주문화상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원(1996). **제주시 옛 지명**. 제주시.
 제주발전연구원(2003). **제주도 생물권보존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제주역사교사모임(2008).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 제주: 각.
 제주연구원 제주발담 6차산업화사업 기반구축사업단(2017). **제주발담이야기**.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7). **제주학 개론**.
 제주지역민주화운동편찬위원회(2013). **제주민주화운동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2013). **광령천의 율류를 찾아서: 광령천 주변마을의 신앙과 세시풍속**.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6).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형·식생·기후 기초학술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2014).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2009). **한라산의 자연자원**.
 제주특별자치도(2009). **세계지질공원 신청대상지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2010). **세계자연유산 해설 표준교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특별자치도(2013). **제주어 표기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2014).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2017). **제주해녀음식문화**.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2017). **환경백서**.
 제주특별자치도(2017a). **제주통계연보 2016**.
 제주특별자치도(2017b). **2016 환경백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09). **제주여성사 I**.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3). **속담으로 배우는 제주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3). **제주어 교육자료: 동사·형용사로 배우는 제주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4). **중등 제주어 교육자료. 인성 덕목으로 배우는 제주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4). **초등제주어교육자료. 도체비영 예숙제길락. 제주어 알아 보게마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5). **2015 과학영재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곶자왈 생태**

Master! 초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6). 2016제주어교육자료: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삼성
신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7). 초등 5~6학년을 위한 4·3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08).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제주특별자치도청 보도자료(2018). 제주특별자치도,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 공모.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 자료.

제주해녀박물관(2017). 2017년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 이야기.

조성운(1998). 제주인의 문화정체성.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서울: 한울.

좌혜경 외(2017). 제주해녀 음식문화. 제주학연구센터.

좌혜경(2009). 제주해녀사료집. 제주해녀박물관.

좌혜경(2015). 제주해녀. 서울: (주)대원사.

좌혜경(2018). 제주도지.

좌혜경·강정식(2014). 제주 해녀문화유산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제주학
연구센터.

주강현(2012). 주강현의 제주도 이야기. 아이세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지음, 김명섭 옮김(2000). 거대한 체스판 - 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삼인.

진성기(1975). 제주도민의 생활과 계, 문화인류학, 7, 한국문화인류학회.

진성기(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서울: 민속원.

최광용(2011). 한라산 사면 및 고도별 기온감률 변동성. 기후연구, 6.

최원오(1997).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한삼인(1999). 제주지역의 가족관습. 판례연구. 2. 제주판례연구회.

한태흥(1998). 제주도 연안 해빈과 사구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5.

해양수산부(2003).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향토자료편찬위원회(1996). 제주의 전통문화(향토교육자료). 제주도교육청.

허남춘 외(2015). 할망 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 음식 이야기. 이야기섬.

허남춘(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서울: 보고사,

허남춘(2017).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서울: 민속원.

- 현길언(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서울: 흥성사.
- 현승환(1997). 제주도 상장례 절차와 신앙적 의미. **탐라문화 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승환(2000). 사만이본풀이 연구. **백록어문1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 현용준(1986). **濟州島巫俗研究**. 서울: 集文堂.
- 현용준(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서울: 집문당.
- 현용준(2002). **제주도 전설**. 서울: 서문당.
- 현용준(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서울: 집문당.
- 현진숙(2014). **제주옷의 특성**. 제주문화의 인문학이야기 강의자료.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 흥기표(2017).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황금녀(2013). **고른베기**. 도서출판 각.
- 황상구·황재하·김동학·Howells, M. F.(1992). 제주도 송악산 응회환.분석구의 화산과정. **지질학회지**, 28.
- 황석규(2017). 외국 이주민의 정착과 전망.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황혜성(1977). 식생활.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TIN 뉴스, 2017.1.19. 어머니가 들려주는 제주 감염색 이야기
- 경향신문, 2018.12.10. 젊은층 가세, '제주 해녀' 증가세로 돌아서나
- 오마이뉴스. 2018.8.15. 우도의 어린 해녀들, 물소중이 입고 바다로
- 한겨레신문, 2017.9.4. **제주도의 그 많던 빗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자료(2007). 고훈식, '어영 마을 바다 풍경', 고훈식, '제주도 할망 정신', 김용해, '물마농꽃', 김종두, '제주의 여름', 박재삼, '日月속에서'
- [네이버 지식백과] 한글의 우수성(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2006. 11. 신원문화사)
-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백나용, 제주新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7473>)

KCTV 삼춘, 어디감수과

엄지혜(2014), 채널예스(<http://ch.yes24.com/Article/View/26261>)

이완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http://www.seelotus.com>)

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2018.11.08.자)

파이낸셜 뉴스(<http://www.fnnews.com>, 2018.10.04.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http://cafe.daum.net/airmartial/IAZo/108?q=%EA%B7%A4&re=1>

<http://www.urimal.org/1639>

<https://wenzelcmm.blog.me/220145803642>

https://www.youtube.com/watch?v=F-5cAiD__AQ

https://www.youtube.com/watch?v=GduJajv1_fY

<https://www.youtube.com/watch?v=ts7kXZs9cVk>

2. 해외 문헌(번역서 포함)

東京都教職員研修センター(2002). 世界の中の日本人としてアイデンティティをはぐくむ教育に関する研究(第1年次). 東京都教職員研修センター紀要, 1.

東京都教職員研修センター(2003). 世界の中の日本人としてアイデンティティをはぐくむ教育に関する研究(実践編). 東京都教職員研修センター紀要, 2.

三宅明正 外 18名(2013)(平成25年). 日本史A. 東京書籍株式會社.

장주근(1973). 韓國の民間信仰 資料篇, 도쿄:금화사.

横山泉·荒木重雄·中村一明(1992). 火山. 岩波書店.

Choi, S. H., Mukasa, S. B., Kwon, S. T. and Andronikov, A. V.(2006). Sr, Nd, Pb and Hf isotopic compositions of late Cenozoic alkali basalts in South Korea: Evidence for mixing between the two dominant asthenospheric mantle domains beneath East Asia. *Chemical Geology*,

- Cliford Geertz(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 Heiken, G. H.(1971). Tuff rings: examples from the Fort Rock-Christmas Lake Valley Basin, South-Central Oregon, *Jour. Geophy. Res.*, **76**.
- James A. Banks(1994). *An Introduction to Multiple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Kokelaar, P.(1986). Magma-water interactions in subaqueous and emergent basaltic volcanism. *Bull. Volcanology*, **48**.
- McGetchin, T. R., Settle, M. and Chouet, B. A.(1974). Cinder cone growth modeled after northeast crater, *Mount Etna, Sicily, Jour. Geophy. Res.*, **79**.
- Ollier, C.(1988). *Volcanoes*. Blackwell.
- Philip Babcock Gove, ed.(198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assachusetts: Merriam-Webster Inc., Publishers.
- S. Hall(1996).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S. Hall et al(eds). *Modernity and Its Futures*. Cambridge: Polity.
- Sohn, Y. K.(1996). Hydrovolcanic processes forming basaltic tuff rings and cones on Cheju Island, Korea, *Ame. Geo. Soc. Bull.*, **108**.
- Williams, H. and McBirney, A. R.(1979). *Volcanology*. Freeman, Cooper and Co.

▣ 부록 1 ▣

제주이해 교육과정

1. 성격	37
2. 목표	44
1) 총괄 목표	46
2) 학교급별 목표	46
3) 교육영역별 목표	47
3. 내용체계	49
1) 제주의 자연과 환경	49
2) 제주의 신화와 전설	52
3) 제주의 말과 글	54
4) 제주의 역사	56
5) 제주의 생활문화	59
4.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61
1) 중핵 교육과정으로서의 제주이해 교육과정	61
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제주이해 교육과정	62
5. 학습내용별 성취기준	65
1) 초등학교	65
2) 중학교	74
6. 교수-학습 방법	86
7. 평가 및 활용	90

제주이해 교육과정

1. 성격

제주이해 교육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초·중학생들이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제주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 그리고 제주인이 지닌 고유한 자질로서의 제주정신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주정체성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기 동일성, 연속성 내지는 지속적 인 자아감이다. 자아정체성은 주관적 측면의 개인정체성과 객관적 측면의 심리사회적 정체성 혹은 집단정체성의 통합으로 형성된다. 제주정체성은 후자의 집단정체성에 해당하며, 그것은 지역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융합을 통하여 달성된다. 지역정체성으로서의 제주정체성은 제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이고 일체감이며, 문화정체성으로서의 제주정체성은 제주인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생활경험과 생활방식에 토대하여 형성된 고유한 정신적 자질이고 ‘특유한 문화적 요소들’(固有項, native cultural items)이라 할 수 있다.

제주정체성은 제주인들 각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함께 집단적 정체성이 자아정체성으로 수렴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제주라는 지역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일체감이며,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理解)와 공감(共感)을 통하여 그 바탕에 놓여 있는 고유한 자질과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형성된다. 여기서 제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현재 제주에 살면서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지만, 진정한 제주구성원이라고 느끼는 일체감은 긴 세월 동안 삶을 영위하면서 형성되어 온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이나 제주문화의 특유한 고유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한 번 형성된 자아정체성은 연속성, 단일성, 독자성, 불변성을 추구하며 계속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과 경험에 직면할 때, 개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

성을 재구성하게 된다. 지난 세기말 이래 지구촌은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추세에 한국과 제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화의 물결은 한편으로 지구공동체와 세계시민의식을 낳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국과 지역문화의 정체성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제주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한 응전 전략으로 특별자치도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비전과 전략으로 삼아 왔다.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한편으로 제주의 개발과 발전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분별한 난개발과 외부문화의 유입으로 제주다움이 사라지면서 제주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어느 때보다 제주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재구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의 새로운 세대에게 제주정체성의 형성 혹은 재구성의 문제가 더욱 절실한 교육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은 다양한 공동체적 삶의 과정과 각종 사회화 기관의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역정체성의 경우에 때로는 정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되기도 한다. 특히 이 경우,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적극적일수록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징을 등장시키거나 이념적 구성물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념적 구성물이나 상징들을 다양한 사회화 기관이나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홍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적 접근 방식은 자칫 특정 정치권력이나 정파(政派)에 대한 ‘특수지지’(specific support)와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정체성 교육’은 이민족과 이질집단을 대상으로 자국문화로 편입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추진된 동화주의(assimilation) 교육정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화주의적 정체성 교육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함께, 우리의 경우 종종 특수지지와 지배 정당화의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서는 ‘정체성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고, 나아가 정체성 교육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 위하여 이 교육과정의 명칭을 ‘제주정체성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제주이해 교육과정’이라 부르기로 한다. ‘제주이해 교육과정’은 아래의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이 교육과정의 목적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주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아정체

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특수지이나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라나는 세대나 외지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제주문화로 편입시키려는 동화주의적 교육이어서도 안 된다. 제주정체성은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이나 제주문화의 고유함을 습득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나 제주이해 교육은 제주정체성을 함양하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제주현실에서 제주정체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자라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제주인을 넘어 한국인, 그리고 세계인이 될 수 있도록 ‘다중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s)과 ‘다중 정체성’(multiple identities)을 함양하는 데까지 그 목적을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 속의 제주인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사람,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어야 한다.

둘째, 이 교육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과 제주문화의 고유함을 이해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제주인과 제주문화의 순종(純種) 찾기와 그것으로 무장시키는 일방적 주입이나 교화(indoctrination)가 되어서는 안 된다.¹⁾ 제주인과 제주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외부로부터 사람과 문화가 유입되고 융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왔다. 이미 제주사회에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서로 씨줄과 날줄로 엮인 ‘혼성 자아’(hybrid ego)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면서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은 무엇이고, 제주문화의 고유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생중심의 탐구식 교수-학습전략을 통하여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인과 제주문화가 다른 지역 혹은 외국의 경우와 어떠한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지 찾아보며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 교육적 노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 교육과정의 교육영역은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해야 한

1) 제주문화의 고유항(固有項)과 제주문화의 순종(純種)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제주문화의 순종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제주에만 존재할 것으로 가정되는 순수문화를 뜻하지만, 제주문화의 고유항은 여러 시대 여러 경로로 제주에 들어온 제주의 구성원들이 삶의 환경과 역사에서 형성하고 발전시켜온 특유한 문화적 요소들을 말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화잡종시대에 오로지 제주에만 있을 것으로 여기는 문화순종 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한 입장은 문화제국주의 혹은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문화의 고유항은 제주와 비슷한 삶의 환경과 역사를 경험한 지역과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특유한 문화적 요소들이다. 순종 찾기보다는 이러한 제주문화의 고유항을 탐색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문화의 고유항을 탐색하고 교육하는 접근은 일방적 주입이나 교화가 아니라 학생중심의 탐구식에 토대한 자율적 학습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는 점에서 <제주의 자연과 환경>, <제주의 신화와 전설>, <제주의 말과 글>, <제주의 역사>, <제주의 생활문화>로 구성하였다.²⁾ 이러한 교육영역들은 제주문화의 고유항들을 풍부히 담고 있으며, 제주인의 고유한 정신적 자질도 이로부터 탐색하고 계발할 수 있다. 그동안 이른바 ‘제주정신’으로 <근면과 조낭정신>, <자립과 자존>, <강인불패>, <수분지족>, <수놓음 정신>, <삼무정신> 등이 거론되어 왔다.³⁾ 그러나 이러한 제주정신들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교육영역별로 나타나는 제주문화의 고유항을 통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각 교육영역들이 제주이해 교육에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2) 제주이해 교육과정의 교육영역을 설정하는 데는 세 가지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제주의 선학들이 일구어온 제주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들로는 김종업 외(1979), 『탐라정신탐구세미나』(제주대학탐라연구소); 김영돈 외(1983), 『제주도민의 삼무정신』(제주도); 송성대(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제주: 제주문화); 김항원(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제주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윤용택(2014),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제주 생활문화 100년』(제주: 제주문화원)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위에서 밝힌 교육영역들에 바탕을 두고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과 제주문화의 고유항을 찾아내고 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7년에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인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면으로 드러난 다양한 문화현상의 밑바닥에서 그러한 문화현상들을 구조화시키는 심층문화 혹은 '문화문법'(cultural grammar)의 개념에 주목하고, 제주인의 문화문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낳는 '조건적(conditioning) 요소'들을 두루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장하는 문화문법을 낳은 조건적 요소들은 대체로 위에서 밝힌 교육영역들과 대략 겹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2. 28, 공동연구진: 강봉수·김태호·강정식·하명실·김대영), 44~50쪽 참조. 셋째, 이 연구용역에서는 제주정체성의 교육영역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에서도 대략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학생, 교원, 일반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제주정체성의 교육영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제주역사(4.12), 자연과 환경(4.02), 제주어(3.99), 제주정신(3.88), 신화와 전설(3.87), 생활문화(3.8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위 보고서, 99~101쪽 참조.
-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66~92쪽 참조.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문화문법을 낳는 조건적 요소들을 두루 검토하여 제주인의 문화문법을 평등성, 현세성, 합리성, 온정성(호혜성), 묘합성(융합성)으로 보면서, 기존에 거론되어온 다양한 ‘제주정신’들도 이러한 제주문화문법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평등성은 성별, 계급별 등의 구분 없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정신이다. 거지 없고 대문 없고 도둑 없다는 삼무정신은 큰 부자도 너무 가난한 자도 없이 공평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인들은 평등성의 문법을 깨려는 외부세력에 대해 때로는 저항하려 하였고, 때로는 그들의 강함에 열등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 현세성은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을 긍정하고 이상향으로 만들어 가려는 정신이다. 제주인들은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현실적 삶의 처지에 순응하는 순박함과 수분의식을 지녔다. 그러나 척박한 현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자조, 자강, 자립, 강인불패, 인내하고 절약하는 조낭정신을 가져왔고, 신(神)에 의지하여서라도 기어이 이상적 삶을 현실에 건설하고자 하는 이어도 정신을 간직하고 있었다. 합리성은 공정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의 지향의 사고이고 개인주의 정신이다. 척박한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주인들은 근면하고 검소하며 실용성을 따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긍정하게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온정성(호혜성)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공동체주의 정신이다. 공동체적 삶은 인정과 상호신뢰에 토대해야 하는 것이다. 온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인들은 척박한 삶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협동하고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었다. 온정과 공동체성이 넘칠수록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위 의식이 강할 것이고, 이를 깨려는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배타심과 저항정신을 가질 수도 있다. 묘합성(융합성)은 다양한 문화와 사고를 허용하고 통합시키려는 조화정신이다. 다양한 문화와 사고를 허락하려면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혼저옵서예 정신은 바로 그러한 관용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겠다. 그것은 외부의 이질적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존하려는 적극적 태도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움도 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보고서, 110~134쪽; 강봉수, “제주정체성으로써 ‘제주정신’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제주문화문법”, 『제주도연구』 제50집(제주학회, 2018. 8), 181~225쪽 참조.

<제주의 자연과 환경>: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영위되는 인간의 활동 또는 생활방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정신적 산물로 볼 수 있는 정체성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체성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는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영역이 필요하다. 화산으로 생성된 지형과 지질이라는 제주의 특이한 지리적·자연적 여건은 과거의 제주인들에게 삶의 양식을 얻는 데 힘겨운 노동을 요구하였고 삶을 척박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토양은 화산회토로서 돌이 많고 물이 땅속으로 쉽게 스며드는 필수지역이라 물이 귀했고 토지생산성도 낮았다. 그래서 제주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밭농사, 목축업, 물질 등을 하며 삶을 일구어 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의 특이한 자연 환경적 조건은 오늘날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한라산과 백록담, 오름과 용암동굴,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 해안과 바다경관 등은 제주인의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중히 가꾸어 가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특히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비롯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람사르협약 습지까지 4개 분야의 국제보호지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러한 천혜의 제주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주 자연 환경의 형성과정과 그 가치를 탐색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의 신화와 전설>: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어온 신화와 전설은 그것을 탄생시킨 민족이나 지역주민의 사고방식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 신화와 전설은 제주 사람이 제주의 언어로 나타낸 문화적 산물로서 제주 사람이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의 신화는 제주라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며, 전설은 그것의 생성 과정에서 생겨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신화와 전설은 제주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이다. 특히, 제주의 신화와 전설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제주에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보다도 풍부한 신화와 전설을 간직하고 전승해온 곳이기 때문이다. 천지창조와 제주탄생을 알리는 천지왕신화, 삼성신화와 설문대할망전설을 비롯하여,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현상을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반적인 신들의 내력담인 일반신본풀이신화가 있다. 자

연부락인 제주의 모든 마을에는 그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 좌정한 본향당이 있었고 그에 따른 신의 내력담인 본향당본풀이신화가 있다. 제주의 자연을 노래한 산과 오름 전설, 역사와 인물들의 영웅담을 그리는 고전적, 김통정, 감목관 김덕 전설 등도 있다. 특히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제주의 신화와 전설을 교육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제주의 선조들이 전승해 온 정신적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려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영역이다.

<제주의 말과 글>: 언어는 민족, 국가,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다. 언어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사유구조를 알려주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의 말과 글인 제주어⁴⁾는 제주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요소이다. 이는 제주가 표준어 혹은 다른 육지부 방언과는 매우 다른 방언을 유지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음운의 측면에서는 자음은 표준어와 동일하게 19개가 사용되고 있으며, 모음은 단모음 /으/, 그리고 반모음 ‘이[y]’와 ‘으’가 연속적으로 발음되는 이중모음 /으/가 추가되어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휘의 측면에서 제주어에는 중세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어휘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꿏[小斗]’·‘드리[橋]’ 등을 들 수 있다. ‘꿏’·‘드리’는 훈민정음 용자례에 나오는 어휘로, 현재 ‘팥’, ‘다리’로 ‘아래아’가 ‘ㅏ’로 바뀐 경우이다. 문법적인 측면에서 제주어에는 표준어와 형태가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의 경우 ‘-네’, ‘-영/광’, ‘-레/드레/데레’, ‘-마쌈’ 등이 쓰이고, 상을 나타내는 형태소 ‘-암시-’, ‘-아시-’ 등이 쓰이고 있다. 오늘날 제주어의 변화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제주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제주어를 사용하는 제주인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제주어 자체를 모르는 새로운 세대, 이주민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말과 글을 되살리는 것은 제주정체성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교육영역이다.

<제주의 역사>: 역사는 축적된 과거의 결과물 중 현실에서 생동하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 시간의 기록인 동시에 공간의 기록이다. 역사적 공간이란 단순한 물리적·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상호적 관계의 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역

4) 제주어는 ‘제주방언, 제주도방언, 제주지역어’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있는 제2조 정의(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에 따라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역사적 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오늘날 역사적 시간의 속도는 매우 빨라졌고 역사적 공간 역시 복잡해졌다. 특히 제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역사적 시간의 속도와 공간의 복잡함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삶속에 매몰되어가고 있다. 정체성을 지닌 제주인의 공간, 즉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제주를 거듭나게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정체성이 제주의 역사적 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제주인을 중심으로 두고 제주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영역이다. 중앙 중심의 제주사가 아니라 제주 중심으로 제주사를 보면 제주인들 자체가 여러 시기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갈등하고 융합하면서 삶의 역사적 공간을 만들어 왔고, 때로는 중앙권력과 외부세력의 수탈에 항거하는 저항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독립국 탐라가 고려로 복속된 이후 제주에서는 양수의 난, 이재수의 난과 같은 민란도 있었고 삼별초항쟁과 목호의 난 등이 있었지만, 이러한 난이나 항쟁에 대한 제주인들의 인식은 중앙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제주인들은 잦은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도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도 하였다. 해방과 분단의 기로에서 제주4·3이라는 아픈 기억을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켰고,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함께 인권·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앞으로 제주를 인권과 평화가 숨 쉬는 역사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주인공은 새로운 세대일 수밖에 없다. 제주의 역사를 돌아보는 교육의 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제주의 생활문화>: 생활문화란 개인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 집단에 따라 형성되는 의식과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따라서 생활문화는 특정 사회의 생활세계를 반영한다. 대체로 일상생활세계는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세계와 달리 잘 드러나지 않는 세계이지만, 여기에는 이성에 의한 합리적 생활전략뿐만 아니라 정서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삶을 안정시키는 견고한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생활문화는 긴 세월 동안 삶을 공유해온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전승과 변이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생활세계로서 지역정체성 혹은 문화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영역이다. 붓뒤창옷(유아복), 호상옷(수의), 갈옷, 물옷(해녀옷) 등은 제주의 의생활에서 보여 지는 독특한 옷들이다. 제주의 식생활문화에는 일상의 음식들이 있고, 특수용도의 음식으로 세시풍속에 따른 음식, 통과례 및 무속의례에 따른 음식, 제사음식 등 무려 457품에 이르는 음식품목이 있다. 주거문화로 제주의 민

가는 대체로 <새>라는 띠 풀로 엮은 초가집이었고, 안거리와 밖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공간이 옹기종기 자리하고 있었다. 가족제도 측면에서 제주의 생활문화는 장남분가와 노부모의 독립적 생활영위, 재산의 균분상속과 조상제사의 분할봉사, 독특한 권당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제주에는 공동체적 문화전통도 강했는데 ‘수놓음’문화와 접계문화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바닷가 마을의 해녀들은 색다른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해녀문화는 그 독특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러한 제반 생활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의 제주정체성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영역이다.

끝으로, 이 교육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개발하는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발 수준은 국가 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단위학교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의 체계는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의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교육 목적과 목표의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육의 방법과 기법, 교육의 평가와 활용 방안 등을 개발하였다.

2. 목표

2018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나머지 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다. 2020년(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이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급에 전면 적용된다. 따라서 「제주이해 교육과정」은 앞으로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발한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적·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급별 목표		
		초	중	고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 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심심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 사고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역량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체성 교육과 관련하여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과 함께 학교급별 교육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주목할 때, 제주이해 교육은 제주를 시공간적 기반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제주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시공간적으로 이를 확대하여 자아정체성의 범위를 넓히고 폭을 깊게 하는 교육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교육목적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제주이해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다음의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2> 제주이해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추구하는 인간상	세계 속의 제주인임을 자각하고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사람,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이를 바탕으로 총괄목표와 학교급별 및 교육영역별 교육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총괄목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주인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 공동체 역량을 길러서 궁극적으로 제주이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2) 학교급별 목표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이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제주이해 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제주어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고장 바로 알기를 통하여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다문화 가족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관용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중학교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이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 제주이해 교육의 목표는 제주인임을 자각하고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원적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3) 교육영역별 목표

가. 제주의 자연과 환경

- **초등학교:**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마을과 우리 고장 제주의 모습을 관찰하고 지형과 지물을 표현함으로써 제주의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자연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다. 제주의 형성과정과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탐구하여 화산폭발에 의해 생성된 다양한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사람들의 삶과 연관지어 이해한다. 제주의 자연과 환경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보존하려는 태도를 기르며, 제주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 **중학교:** 제주의 자연과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고, 그것이 제주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알아보고, 그것이 형성된 과정과 가치, 보존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색하면서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자랑스럽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나. 제주의 신화와 전설

- **초등학교:** 제주에는 다양한 신화와 전설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고, 제주의 신화와 전설을 통하여 제주인의 생활을 이해하며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나타난 공동체의

정서를 이어가고자 하는 태도를 기른다.

- **중학교:** 제주에 전승되는 다양한 신화와 전설을 찾아보고, 신화와 전설에 담긴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이해하며, 제주인의 삶을 탐색하고 공감하도록 한다. 동시에 신화와 전설을 구현하는 전통 문화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다. 나아가 제주를 이해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제주 신화와 전설을 풍부하게 전승하도록 이끌며, 이를 통하여 제주 문화의 향유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다. 제주의 말과 글

- **초등학교:** 제주어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어를 배우고 익혀 실생활에서 활용하며 제주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중학교:** 제주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제주어를 사용하며, 제주 문화를 향유하면서 제주어의 발전과 제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라. 제주의 역사

- **초등학교:** 제주의 역사 사료, 유적지, 지역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과 제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한다. 과거 제주 사람들의 문제와 행동을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 보고,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지식으로 삼는다.
- **중학교:** 자기 고장을 중심으로 유적지 답사와 박물관 탐방 등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제주의 역사를 깊이 탐구하여, 선조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재조명한다. 나아가 제주인의 관점에서 한국사와 세계사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제주사를 탐색함으로써 자유 의지를 지닌 평화·공존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기른다.

마. 제주의 생활문화

- **초등학교:** 제주의 생활문화 전통을 오늘날과 비교하면서 조상들의 슬기로운 삶과 가치를 이해한다. 나아가 주변의 육지이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의 생활문화와 비교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중학교:** 제주의 생활문화 전통의 다양한 특징과 정신적 가치를 이해하고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나아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원적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중 정체성과 다중 시민성을 함양한다.

3. 내용체계

1) 제주의 자연과 환경

가. 내용선정의 원리

자연과 환경은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기후, 지질, 지형, 토양, 수문, 생물 등 환경 구성요소의 조합에 따라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며, 그 결과 자연과 상호작용을 펼치는 인간의 활동과 생활방식도 달라진다. 따라서 먼저 제주의 위치와 환경요소별 특성을 개관하여 제주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이 제주이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영산(靈山)으로 여겨져 온 한라산은 제주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제주인에게는 일종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으로 지정되어 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한라산은 국내외에서 모두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대표하는 장소로 인

정하고 있다.

오름과 용암동굴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의 지역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형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름의 왕국으로 비유되는 제주에서 한라산과 오름이 어우러진 지표경관은 제주인의 의식 속에 원형(原型) 경관으로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름에서 태어나 오름에서 죽는다.’고 표현할 만큼 오름은 제주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비유되는 꽃자왈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만 나타나는 용암지대의 자연림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불모의 땅으로 간주되었으나 생태계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뀌면서 가치가 재조명된 장소이므로 제주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최근의 인식변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전통적으로 취수와 토지이용에 유리한 해안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농경에 불리한 화산섬이므로 바다 의존도가 높아 주요 취락도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였다. 따라서 해안은 삶의 터전으로서 제주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며, 해안에 출현하는 다양한 지형경관은 친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복의 대상으로 제주인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더불어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람사르협약 습지까지 4개 분야의 국제보호지역이 동시에 나타나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제주의 자연과 환경은 국제적 차원에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제주의 다양한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이해는 제주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나. 내용 체계

교육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제주의 자연과 환경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1) 우리 마을의 모습 2) 제주의 위치 3) 제주의 중심지 4) 자연 경관과 주민생활	1. 제주의 위치 및 영역 1) 제주의 위치 2) 제주의 영역 2. 제주의 자연환경 개관

	<p>2. 제주의 형성과 지형·지질</p> <p>1) 화산폭발과 제주 형성</p> <p>2) 지역 탐방</p> <p>3) 한라산의 식생 분포</p> <p>3. 세계자연유산 제주</p> <p>1) 세계자연유산</p> <p>-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p> <p>2) 지역 탐방</p> <p>4. 곶자왈</p> <p>1) 곶자왈의 특징과 분포</p> <p>2) 곶자왈의 가치</p> <p>3) 지역 탐방</p> <p>5. 제주의 현재와 미래</p> <p>1) 국제보호지역</p> <p>2) 우리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p> <p>3) 자랑스러운 제주</p>	<p>1) 기후</p> <p>2) 지형·지질</p> <p>3) 수문</p> <p>4) 생물</p> <p>3. 한라산</p> <p>1) 지질과 지형경관</p> <p>2) 기후와 식생</p> <p>3) 백록담</p> <p>4) 한라산 국립공원</p> <p>4. 오름 및 용암동굴</p> <p>1) 화산지형</p> <p>2) 오름의 유형과 분포</p> <p>3) 용암동굴의 유형과 분포</p> <p>5. 곶자왈</p> <p>1) 용암류와 곶자왈</p> <p>2) 곶자왈의 분포</p> <p>3) 곶자왈의 기능</p> <p>6. 제주의 해안</p> <p>1) 해안선과 해안 유형</p> <p>2) 암석해안</p> <p>3) 모래해안</p> <p>7. 제주의 국제보호지역</p> <p>1)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p> <p>2) 세계자연유산 제주</p> <p>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p> <p>4) 제주의 람사르협약 습지</p>
--	---	---

2) 제주의 신화와 전설

가. 내용선정의 원리

신화는 학술적인 용어이고, 제주에서는 본풀이라 불린다. 본풀이라는 용어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담고 있지만, 교육행위는 학술적 용어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기에 여기서는 본풀이보다는 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주 신화와 전설은 제주 사람이 제주의 언어로 나타낸 문화적 산물이다. 그것은 제주 사람이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해석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의 신화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며, 전설은 그것의 생성 과정에서 생겨난 의미를 증거로써 해설한다.

제주의 신화는 제주의 탄생과 지속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주 구성원들이 삶을 영위하는 땅과 공간에 대한 생각과 존재방식, 가족의 소중함과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신화 속에 존재한다. 신화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호하는 과정으로 확산된다. 이는 신화가 현대에 계승되어 재조직되고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되어 후손에게 전승되는 것이다. 전설은 증거물과 함께 전승되어 왔다. 따라서 제주의 곳곳에 남아 있는 전설과 증거물들을 통하여 자연사상과 인문사상을 살피고, 조상과 공감되는 해석을 찾아내는 것은 신화와 전설 교육의 주안점이다. 그러기 위해 신화와 전설의 내용을 선정하게 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화와 전설에는 민중이 남긴 사상과 감정이 역사와 함께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민중의 삶이 작품 속에 어떻게 수렴되어 있는가를 내용으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에 전설은 증거물을 통하여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조상들의 삶의 양상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즉, 허구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해석의 기초로 삼는다. 제주신화는 인간적 속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신화 속 사건이 이웃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친근하다. 하지만 실제 하는 사건이 아니며 있음직할 뿐이다. 그러므로 인물과 사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벗어나 상상 속에서 무한히 확대된다. 오늘날 우리의 현재 삶과 비교하면서 인물을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신화와 전설은 당대의 전승민들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전승'되었다. 따라서 서사공간 속에 전승민들의 기쁨과 애환이 담겨 있으며, 갖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도 숨겨져 있다. 이를 찾아 조상의 자연극복 방법, 삶에 대한 의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파악하여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신화와 전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다. 가족 간, 친족 간, 심지어는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신화와 전설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도록 한다. 이웃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식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함을 배우게 한다.

넷째, 신화와 전설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여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이 가족과 이웃의 평화로 수렴됨을 파악한다. 삶의 소중함은 나 개인만이 아닌 이웃의 존재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음은 신화와 전설의 소재와 제재를 통해 교육한다. 증거물의 보존은 곧 조상과 후손의 의사소통임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의 삶은 생활 언어로 의사소통하지만, 신화와 전설의 언어는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유와 상징이 의사소통을 풍부하게 함을 깨닫게 하여 신화와 전설의 언어의 가치를 드높이고 제주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언어생활을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한다.⁵⁾

나. 내용체계

교육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제주의 신화와 전설	1. 전설로 말하는 제주의 자연 1) 설문대할망 2) 산과 오름이야기	1. 전설로 연결하는 제주의 자연 1) 설문대할망 2) 산과 오름

5) 이상의 내용선정의 원리에 따르지만, 제주신화와 전설은 다양하고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그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첫째, 제주신화에는 무속신화가 대다수인데,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가 중심이다. 일반신본풀이는 일반적인 자연사상(自然事象)이나 인문사상(人文事象)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신들의 이야기이고, 당신본풀이는 마을을 형성하게 된 유래를 해석 설명하는 당신의 이야기이며, 조상신본풀이는 한 가문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 인간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당신본풀이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연사상과 인문사상에 대해 해석하고, 그 결과를 자손들에게 전승하면서 조상으로서의 위상을 세워갔다. 따라서 이러한 신화 속에 담긴 여러 요소 중 탐라건국과 이를 위한 준비단계,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탄생과 혼인, 삶과 죽음을 거치면서 제주인은 제주의 자연과 인문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신화와 전설이 제주민이 남긴 언어예술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심미적 쾌락을 주는 제주인의 미의식도 찾는다. 둘째, 전설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자연전설, 역사전설, 신앙전설로 나누어진다. 전설이 자연이나 역사적 인물, 사건 중 특이한 사실에 대해 해석, 설명하는 것이기에 일반성은 배제된다.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해 제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그러한 자연과 공존하면서 제주민들이 자연에 도전하고 극복하려는 그들의 신앙 관습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다. 민중의 해석이기에 전문성은 없다. 이러한 점이 오히려 전설의 매력이며, 미의식이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제주인이 도래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지며 제주를 지켰는지를 살피게 된다. 이것이 제주가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외부에 동화되지 않고, 제주만의 특성을 유지하게 된 특수성이기도 하다.

<p>2. 신화로 말하는 제주 이야기</p> <p>1) 탐라건국과 삼성신화 2) 천지창조 신화와 대별왕 소별왕 3) 서천꽃밭 꽃감관 한락궁이 4) 운명의 여신 가문장아기 5) 아기 할망 삼승할망 6) 염라대왕의 저승사자 강림도령 7) 농사의 신 자청비와 문도령 8) 송당 마을의 신 백주또와 소천국</p> <p>3. 신화와 전설에 깃든 제주인의 삶</p> <p>1)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신 2) 전설 속 제주인의 삶</p> <p>4. 이야기의 탄생과 전승</p> <p>1) 제주신화와 전설 문화유산 2) 제주 신화와 전설을 찾아서</p>	<p>3) 물과 해안</p> <p>2. 신화와 전설에 새겨진 제주의 역사. 인물</p> <p>1) 삼성신화와 제주 2)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 3) 감목관 김덕과 제주의 말 4) 고전적과 제주의 풍수</p> <p>3. 신화에서 발견하는 제주인의 삶</p> <p>1) 삼승할망신화: 생명관(탄생) 2) 차사신화: 저승관(죽음) 3) 삼공신화: 결혼관 4) 세경신화: 생산관</p> <p>4. 신화로 풀어내는 제주의 문화</p> <p>1) 천지왕신화와 문화창조 2) 문전신화와 제사문화 3) 멩감신화와 인정문화 4) 칠머리당 영등굿과 세계문화유산</p>
--	---

3) 제주의 말과 글

가. 내용선정의 원리

제주어는 제주인의 언어로서 오랫동안 제주인의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어는 제주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고유항 중의 하나였지만, 오늘날 제주어를 사용하는 제주인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제주어 자체를 모르는 새로운 세대, 이주민들이 늘고 있다. 제주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어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폭넓은 제주어 사용 경험을 쌓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주어 사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발전적

인 문화 창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제주어 사용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길이 보존하려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 교육영역의 성격과 내용선정의 원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주어’는 제주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창의적인 제주어 사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어의 발전과 제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가치 있는 제주어 활동을 통해 제주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영역이다.

둘째, ‘제주어’의 하위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이다. 학습자는 이들 영역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각 영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기름으로써 ‘제주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제주어’는 담화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각과 느낌, 경험을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과 제주어가 쓰는 실제 양상을 탐구하여 제주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반성하며 인식하는 활동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학습자는 이러한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주어’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넷째, ‘제주어’는 다른 영역의 학습 및 활동과 범 영역별로 연계된다. ‘제주어’는 범 영역 내용이나 주제를 담은 담화나 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한다.

다섯째, ‘제주어’의 교수-학습과 평가는 학습자가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주어 사용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나. 내용체계

교육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제주의 말과 글	1. 듣기 / 말하기 1) 제주어로 인사 나누기 2) 제주어 가족 호칭 3) 제주어 신체 부위 명칭 4) 제주어의 맛과 멋 - 재치 만점 제주 속담 2. 읽기 1) 제주어로 된 이야기의 읽기 경험	1. 듣기 / 말하기 1) 영화, 드라마 속 한 장면을 제주어로 말하기 2) 일상생활 속 제주어 말하기 3) 제주어 대화 상황 이해하기 2. 읽기 1) 제주어로 창작된 문학작품 감상하기 2)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글 읽기

	<p>과 느낌 나누기</p> <p>2) 제주어로 된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p> <p>3. 쓰기</p> <p>1) 문학작품을 제주어로 바꾸어 쓰기</p> <p>2) 제주어를 활용한 글쓰기</p> <p>4. 문법</p> <p>1) 제주어의 높임법과 언어 예절</p> <p>2) 제주어 소중히 여기기</p>	<p>3. 쓰기</p> <p>1) 문학작품을 제주어로 바꾸어 쓰기</p> <p>2) 제주를 소개하는 글쓰기</p> <p>4. 문법</p> <p>1) 제주어 동사, 형용사 이해하기</p> <p>2) 표준어와 제주어 이해하기</p> <p>3) 제주어의 관용표현 이해하기</p>
--	---	--

4) 제주의 역사

가. 내용선정의 원리

제주사는 한국사와 같으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다. 크게 보면 제주사도 한국사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지방사이겠지만, 제주중심으로 제주사를 보면 역사를 읽는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선사 유적과 탐라국의 흔적을 통하여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개척했던 제주인의 개방적인 삶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제주인의 정체성을 논할 때 따라 다니는 폐쇄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항해술이 발달한 오늘 날의 조건에서, 바다는 더 이상 섬을 가두는 존재가 아니고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개방적이고 통 큰 제주인의 정체성을 생성시킬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리면, 약 1000년간 지속되었던 탐라국이 고려에 복속되면서 11세기 이후 제주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변방지역으로 남아있었다. 그 속에서 제주는 중앙 정부의 보살핌에서는 소외된 채 병참기지, 진상품 공급지, 유배지, 왜구의 방어 거점지 등으로 존재하였다. 그러한 중앙 정부의 정책이 부당하게 펼쳐질 때 제주인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양수의 난에서 제주 4.3에 이르는 저항의 역사 속에서 제주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이 교육영역에서는 제주와 제주인을 중심에 두고 제주사를 돌아보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주사도 한국사의 일부분이라는 관점도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사와 한국사, 나아가 세계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제주라는 미래의 역사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도 탐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교육영역을 구성하는 내용선정의 원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문의 측면에서는 역사학의 본질적 내용인 역사적 사실, 핵심 개념 및 원리, 연구 방법 등을 고려하였다. 제주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중 제주에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역사적 인물, 사건, 장소를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익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적 의의, 증거, 지속과 변화, 인과관계, 역사적 관점, 윤리적 판단 등과 같은 역사적 사고 개념을 내용으로 고려하여 성취 기준을 작성하는 기초로 삼았다.

둘째, 학습자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경험, 인지 수준, 이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내 주변의 역사, 제주의 인물, 장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제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연대기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였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다중 정체성, 다양성, 개방성, 평화, 정의, 민주적 참여 등과 같은 개념과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다. 제주사, 한국사, 세계사를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하고 개방적인 관점으로 제주민의 삶을 알아보며, 제주의 삶의 조건에 대응하였던 제주 사람들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하였다.

나. 내용체계

교육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제주의 역사	1. 내 주변의 역사 1) 과거와 오늘날의 가족생활 이해 2) 과거와 오늘날 학교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 3) 주변에 있는 건물, 길, 기념비, 터 등의 이름에 담긴 역사 찾기	1. 제주의 선사 문화 1) 제주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2) 고산리에서 시작된 신석기 문화 3) 상모리 청동기 문화인의 도래 4) 초기 철기 문화와 고인돌 2. 탐라시대의 제주

<p>2. 제주에 살았던 사람들</p> <p>1) 제주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 선사 시대 사람들의 생활</p> <p>2) 제주에 나라를 만든 사람들: 탐라국 설화와 탐라인의 생활 3) 제주 이주와 다양해진 사람들: 몽골족, 유배인, 4·3사건시 이주민, 한국전쟁기 이주민, 산업화 시기 이주민 등을 중심으로 인구 구성원과 규모 살펴보기</p> <p>4) 제주의 중심지 변화와 역사적 사건 관련성 이해하기</p> <p>3. 역사 속의 제주라는 장소</p> <p>1) 잃어버린 탐라의 섬</p> <p>2) 진상품 공급지: 고려의 관리 파견과 조선의 지배 정책(1인10억과 출륙금지령)</p> <p>3) 말의 고장과 목축업의 발달</p> <p>4) 유배지로서 제주</p> <p>5) 1만 8천신의 고향으로서 제주</p> <p>6) 왜구 방어 거점지</p> <p>7) 병참기지로서 제주: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p> <p>8)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고</p> <p>9)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p> <p>4. 제주의 삶과 제주인의 행동</p> <p>1) 제주의 민란: 양수의 난, 강제검의 난, 방성철의 난, 이재수의 난</p> <p>2) 삼별초 항쟁과 제주 사람들</p> <p>3) 원의 지배와 목호의 난</p> <p>4) 의병과 항일 독립 운동</p> <p>5) 해방과 제주4.3</p> <p>6) 한국전쟁과 제주</p> <p>7) 제주의 민주화 운동</p> <p>8) 한반도 평화와 제주</p>	<p>1) 삼성신화, 탐라의 건국이야기</p> <p>2) 탐라, 해상국가로의 발전</p> <p>3) 탐라, 고려에 복속</p> <p>3. 고려와 원에 장악된 제주</p> <p>1) 고려 지방관의 파견과 양수의 난</p> <p>2) 제주인의 삼별초항쟁에 대한 인식</p> <p>3) 원의 지배와 목축 그리고 불교</p> <p>4) 목호의 난에 가담한 제주 사람들</p> <p>4. 3읍에 파견된 조선의 지방관</p> <p>1) 잦은 왜구의 침략과 방어시설</p> <p>2) 말 진상의 중심, 1인 10억</p> <p>3) 출륙 금지령, 유배의 땅</p> <p>4) 민중의 저항</p> <p>5. 1만 8천신의 고향</p> <p>1) 가난을 짊어지고 살았던 제주인</p> <p>2) 여신이 많은 제주의 신당</p> <p>3) 유교정책과 남성중심의 포제</p> <p>6. 일제 강점기 제주인의 삶과 저항</p> <p>1) 일제의 식민통치와 병참기지화 정책</p> <p>2) 제주인의 출가 노동</p> <p>3) 제주인의 항일 운동</p> <p>7.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주 4.3</p> <p>1) 불완전한 해방</p> <p>2) 제주4·3, 그 아픔의 기억</p> <p>3) 인권·평화의 역사로의 제주4·3 인식</p> <p>8. 제주4·3이후 민주화운동</p> <p>1) 삶의 터전을 지킨 사람들</p> <p>2) 제주에서의 민주화운동</p> <p>3) 민주화운동과 제주4·3 진상규명</p> <p>9. 우리 마을(학교) 역사쓰기</p> <p>1) 나의 역사쓰기</p> <p>2) 우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p> <p>3) 내가 그리는 우리 마을의 미래</p>
---	---

5) 제주의 생활문화

가. 내용선정의 원리

생활문화는 개인들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생활문화는 긴 세월동안 삶을 공유해온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전승과 변이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생활세계로서 지역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이다. 제주의 생활문화는 육지부의 상위문화와 보편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그 독특성이 도드라진다. 제주 생활문화의 독특함은 무엇보다 섬이라는 자연환경과 척박한 지역적 특성에서 유래한다. 제주인들은 의식주문화, 가족 및 친족문화, 이웃 관계 문화, 마을 생활 문화, 농경문화 등 많은 면에서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생활문화를 형성해왔다.

생활문화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 집단에 따라 형성되는 의식과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따라서 생활문화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서, 가치나 태도 등이 의식의 측면과, 아울러 실제의 의식주생활, 가족 및 친족생활, 아동생활, 소비생활, 시간생활, 사회정치생활 등의 모든 생활양식이 망라되어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문화의 내용 요소들을 이 교육과정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학습량이나 수업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 교육영역의 내용을 선정하는 데는 크게 타당성의 원리, 중요성의 원리, 흥미성의 원리에 따르고자 하였다.

타당성의 원리란 교육내용이 교육목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구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선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교육목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교육내용이 알차게 구성됐다고 해도 교육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 선정은 재고될 수밖에 없다.

중요성의 원리란 제주지역 학생으로서 제주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교육내용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문화 영역에 담을 수 있는 교육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중에서도 제주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를 추려내어 담고자 하였다.

끝으로 흥미성의 원리란 교육내용 선정 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유발에서 시작된다.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부합함은 물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원리에 따라 교육영역의 내용구성을 의·식·주 생활문화, 가족제도와 권당문화, ‘수놓음’ 공동체 문화, 해녀문화 등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세부 내용들은 먼저 제주 생활문화의 고유함을 드러내어 살핀 다음, 육지부 문화와 비교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 내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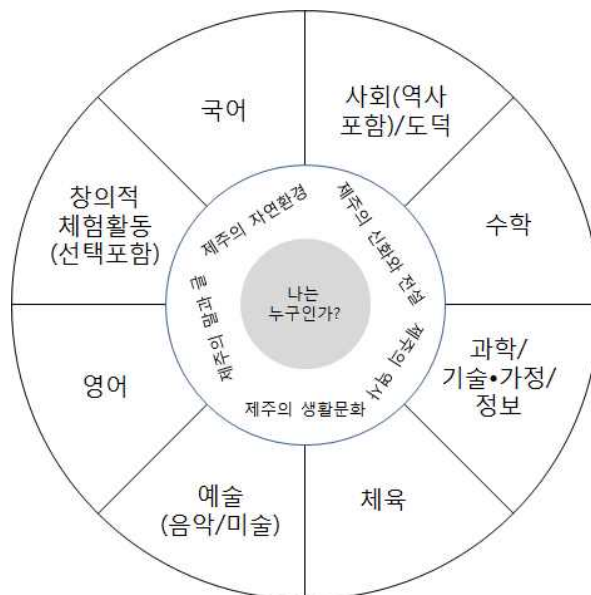
교육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제주의 생활문화	<p>1. 의·식·주 생활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의 전통적 의복문화 2) 제주의 전통적 음식문화 3) 제주의 전통적 주거문화 <p>2. 가족제도와 권당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의 전통적 가족제도 2) 제주의 전통적 가족들의 생활 모습 3) 권당의 의미와 권당문화 <p>3. ‘수놓음’ 공동체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의 전통적 마을의 모습 2) 제주의 전통적 마을 사람들의 생활모습 3) 제주 특유의 ‘수놓음’ 문화 4) 접, 계, 향약 문화 <p>4. 해녀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녀들의 삶의 방식 2) 해녀문화 체험 3) 해녀문화의 보존가치 	<p>1. 의·식·주 생활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의 전통적 의복과 갈옷문화 2) 제주의 전통적 음식과 식사방식 3) 제주의 전통적 민가의 모습 4) 제주의 의식주문화와 육지부의 그것과의 비교 <p>2. 가족제도와 권당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가족제도와 친족문화 2) 제주의 전통적 가족제도 3) 권당문화의 의미 4)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제주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비교 <p>3. ‘수놓음’ 공동체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 마을의 형성배경 및 마을의 구조 2) 제주 전통의 마을제 및 미풍양속, 민속놀이 3) ‘수놓음’문화와 제주의 자연적 여건 4) 접, 계, 향약 문화 <p>4. 해녀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녀의 탄생 배경 2) 해녀들의 삶의 방식 3) 해녀들의 항일운동 4) 해녀문화의 의의와 보존가치

4.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1) 중핵 교육과정으로서의 제주이해 교육과정

제주이해 교육과정은 제주도내 단위학교에서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운영하고자 개발된 것이 아니다. 제주이해 교육과정은 중핵 교육과정으로, 제주이해를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심에 두고 각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과의 인위적 벽을 허물고, 지역 및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해 구안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이해 교육과정의 교육영역으로 설정한 <제주의 자연과 환경>, <제주의 신화와 전설>, <제주의 말과 글>, <제주의 역사>, <제주의 생활문화>의 영역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교과(군)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군)에서도 충분히 해당 영역을 포함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중핵교육과정으로서의 제주이해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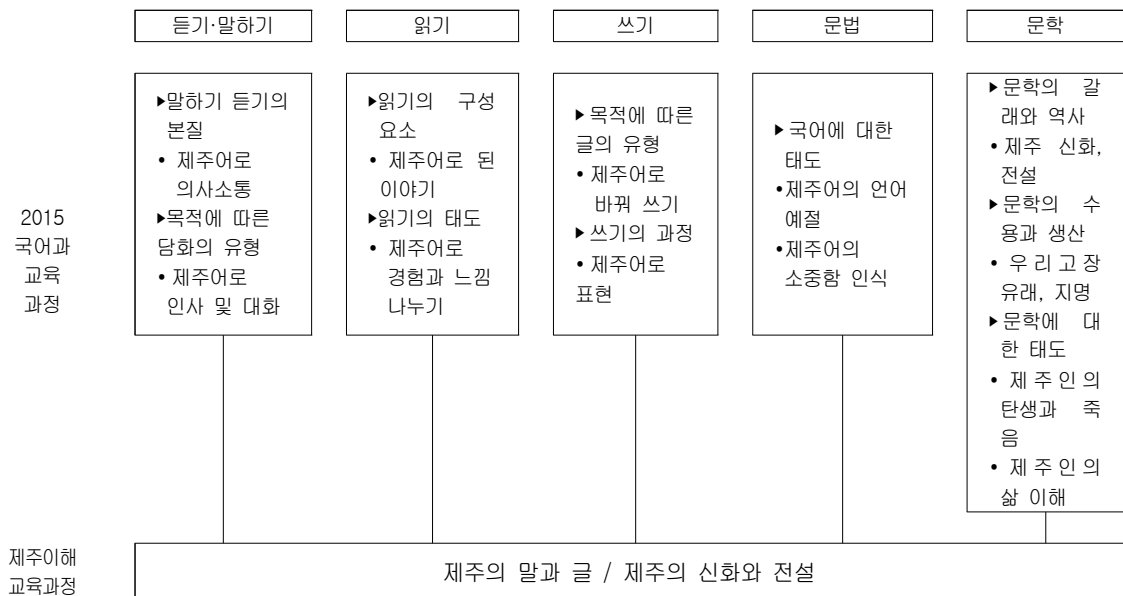
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제주이해 교육과정

가. 국어과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내용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내용은 하위 범주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년(군)별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각 영역이 추구하는 통합적 ‘기능’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이해 교육과정의 제주의 말과 글 영역 역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으로 구성되며,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제주어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제주이해 교육과정 중 제주의 신화와 전설 영역은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학 영역을 대표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으로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및 자연과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제주이해의 출발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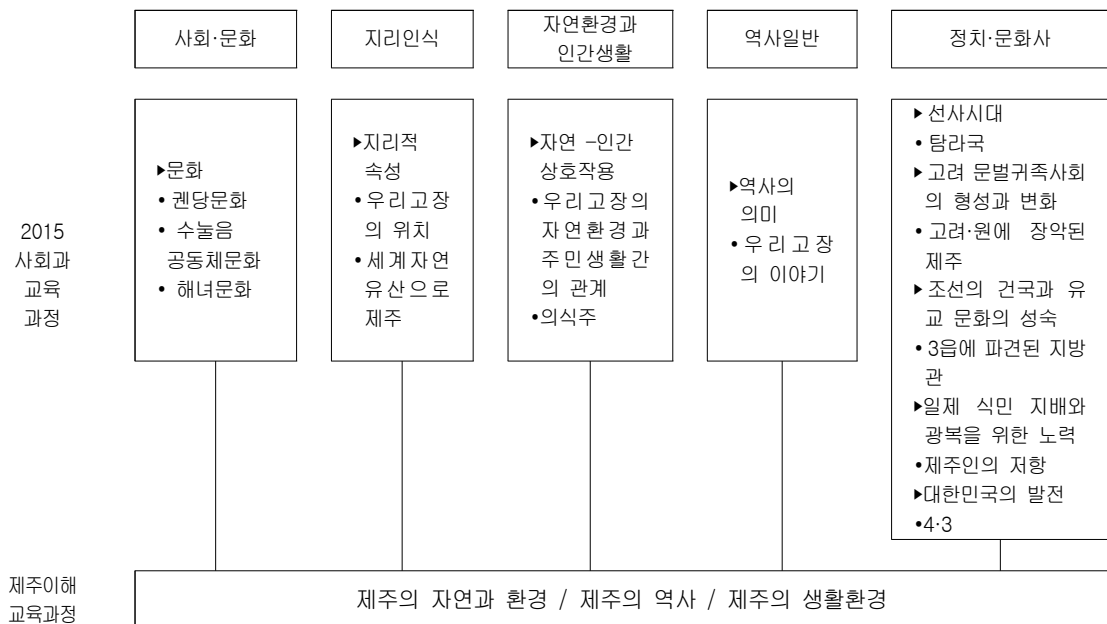


[그림 2] 제주이해 교육과정과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연관성

나. 사회과

2015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과는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의 이해를 기초로,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국토와 환경, 한국 사회 제도의 현실과 변화, 지구촌의 특징과 변화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미 사회과 교육과정은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차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그 영역은 정치, 법, 경제·문화, 지리인식, 장소와 지역,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 가능한 세계, 역사 일반, 정치·문화사, 사회·경제사 등의 11개로 구성된다. 제주이해 교육과정 중 제주의 생활문화, 제주의 자연과 환경, 제주의 역사 영역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문화, 자연 환경과 인간생활, 역사일반 등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 제주이해 교육과정과 2015 사회과 교육과정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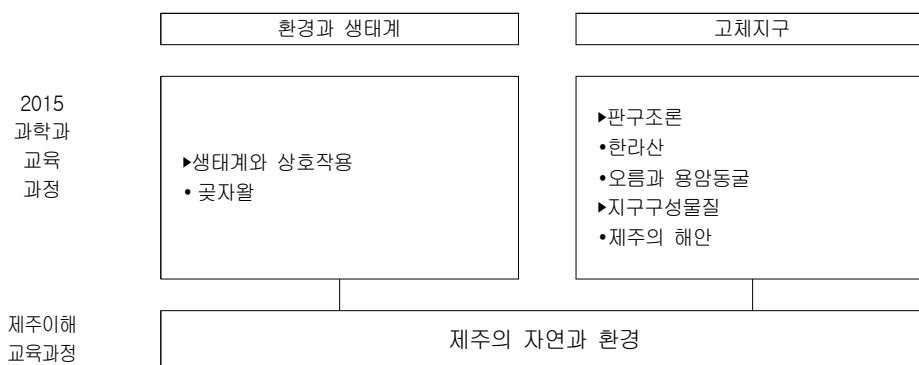
특히 제주이해 교육과정 중 제주의 역사는 우리 지역의 역사가 형성·발전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여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현대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제주의 역사가 어떻게 해설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과학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은 일상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상황을 통해 과학 지식과 탐구 방법을 즐겁게 학습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과학과 사회의 올바른 상호 관계를 인식하며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이해 교육과정은 제주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제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이해 교육과정 중 제주의 자연과 환경 영역은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의 환경과 생태계, 고체 지구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주 자연환경 탄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계 보존 의식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4] 제주이해 교육과정과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관성

라. 도덕

도덕과는 제주이해 교육과정의 핵심 교과로 작용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 및 한국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를 내면화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과로 제주이해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이 없지만, 2015 도덕과 교

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역처럼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를 끊임 없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5. 학습내용별 성취기준

1) 초등학교

가. 제주의 자연과 환경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모습을 관찰하고, 제주의 위치를 설명하며 제주의 자연경관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

[6자(사회)01-01] 우리 마을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지도로 그린다.

[6자(사회)01-02] 제주의 지리적 위치를 이해하고 설명한다.

[6자(사회)01-03] 현재 제주의 중심지를 확인하고 과거의 중심지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6자(사회)01-03] 제주의 자연경관과 주민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한다.

(2) 제주의 형성과 지형·지질

제주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제주의 지형, 지질에 관심을 갖는다.

[6자(과학)02-01] 화산활동으로 인한 제주 섬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제주의 지형,

지질에 관심을 갖는다.

[6자(사회)02-02] 지역 탐방 계획을 세우고 지역 탐방을 통해 제주 섬 형성 과정의 증거를 탐구한다.

[6자(사회)02-03] 한라산의 높이에 따른 식생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한라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3) 세계자연유산 제주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까닭을 알고, 제주의 자연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6자(과학/사회)03-01]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까닭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이해한다.

[6자(사회)03-02] 지역 탐방 계획을 세우고 지역 탐방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가치를 탐구한다.

[6자(사회)03-03]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제주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4) 곶자왓

곶자왓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파악한다.

[6자(과학)04-01] 곶자왓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분포 지역을 탐색한다.

[6자(과학/사회)04-02] 지하수 함양과 관련지어 곶자왓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6자(과학/사회)04-02] 지역 탐방 계획을 세우고 지역 탐방을 통해 곶자왓의 생태계를 탐구한다.

(5) 제주의 현재와 미래

제주가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고 제주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6자(사회)05-01] 제주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음을 이해한다.

[6자(사회)05-01] 제주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6자(사회)05-02] 제주의 자연환경 중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발표한다.

나. 제주의 신화와 전설

(1) 전설로 말하는 제주의 자연

제주 전설에 나타난 자연의 흔적과 인물의 생애를 통하여 제주의 자연을 이해한다.

[6신(사회)01-01] 제주 전설을 통하여 마을이 생긴 유래와 특징을 설명한다.

[6신(국어)01-02] 제주 전설을 읽고 전설 속에 그려진 자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6신(사회)01-03] 제주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제주의 자연 속에서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지는지를 설명한다.

(2) 신화로 말하는 제주 이야기

제주 신화를 읽으며 그 속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 내용 줄거리, 인상적인 장면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6신(국어)02-01] 제주에 전해 내려오는 신화 속의 주인공이 한 일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6신(국어)02-02] 제주 신화를 읽고 주인공들의 성격과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한다.

[6신(국어)02-03] 제주 신화 속의 인물과 나의 삶을 연계하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3) 신화와 전설에 깃든 제주인의 삶

제주 신화와 전설에 담긴 생활 모습과 문화를 통하여 제주인의 생활과 삶을 이야기한다.

[6신(국어)03-01] 제주 신화나 전설에 나타난 제주인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느낀 바를 이야기한다.

[6신(사회)03-02] 제주 신화나 전설 속에 나타난 모습과 사회 변화로 달라진 생활상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다.

(4) 이야기의 탄생과 전승

제주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고 우리 고장과 비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한다.

[6신(사회)04-01] 제주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고장의 유래와 특징을 설명한다.

[6신(사회)04-02] 제주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장소를 지도그리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6신(사회)04-03] 제주 신화나 전설에 나타난 주요 지역을 찾고 그 지역의 보존적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다. 제주의 말과 글

(1) 듣기/말하기

초등학교 3~4학년군의 듣기/말하기 영역 성취기준은 학습자들이 제주어로 된 쉽고 간단한 낱말, 어구, 문장, 표현 등을 듣고 이해하며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학습자들이 3~4학년군의 듣기/말하기 영역 성취기준을 달성함으로써 제주어 사용 능력의 기초를 다지고, 제주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제주어 표현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말(국어)01-01] 쉽고 간단한 인사말을 제주어로 주고받는다.

[4말(국어)01-02] 제주어로 가족의 호칭을 알고 간단한 문장으로 소개한다.

[4말(국어)01-03] 신체 부위의 제주어 명칭을 알고 말한다.

[4말(국어)01-04] 재미있는 제주어 속담을 통해 제주어의 맛과 멋을 느낀다.

(2) 읽기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읽기는 제주어의 강세와 리듬, 억양에 주의하며 읽기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으로 제주어로 된 간단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기를 넘어 낱말이나 어구,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학습자들이 3~4학년군의 읽기 영역 성취기준을 달성함으로써 제주어 읽기 능력의 기초를 다지고, 제주어로 된 글을 스스로 찾아 읽으며 자기 주도적 제주어 학습 방법을 습득하여 제주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말(국어)02-01] 제주어로 된 이야기의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말(국어)02-02] 쉽고 짧은 제주어로 된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3) 쓰기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쓰기 영역 성취기준은 학습자들이 구두로 익힌 제주어를 활용하여 동시나 극본 등을 제주어로 바꿔 쓰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쉽고 간단한 제주어 낱말이나 어구로 쓸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학습자들이 3~4학년군의 쓰기 영역 성취기준을 달성함으로써 제주어로 쓰기 능력의 기초를 다지고, 제주어 표현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말(국어)03-01] 동시나 극본 등의 문학작품을 제주어로 바꿔 써보고 제주어의 특성을 안다.

[4말(국어)03-02]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제주어로 쓴다.

(4) 문법

초등학교 3~4학년군의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은 제주어의 유의어와 반의어, 문장의 호응 관계 및 높임법에 대한 이해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제주어를 소중히 여기고 언어 예절을 지키며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학습자들이 3~4학년군의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을 달성함으로써 제주어의 다양한 낱말과 문장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제주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 제주어 보전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말(국어)04-01] 제주어 높임법을 알고 제주의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4말(국어)04-02] 제주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

라. 제주의 역사

초등학교 역사영역의 성취 기준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인물, 전개 과정이 활동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역사적 사고 개념을 중심으로 과제 일반적인 형태의 성취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성취 기준의 영역은 '역사적 의의', '증거', '지속과 변화', '인과관계', '역사적 관점', '윤리적 판단'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내용 체계에 제시된 내용들과 몇 가지 성취기준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영역별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의의

[6역(사회)01-01] 주변 혹은 지역의 역사적 유물, 유적, 건물, 기념비, 터, 역사적 장

소를 살펴보고 구성, 기능, 의의와 관련한 질문을 찾아본다.

[6역(사회)01-02] 예나 지금이나 제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의 의의를 국가의 역사와 관련지어 분석한다.

(2) 증거

[6역(사회)02-01] 역사 내러티브, 역사화, 사진, 삽화, 지역사회 기관, 박물관을 활용하여 과거 제주의 일상생활에 관한 자료들이 과거 제주 사람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말해주고 있는지 설명한다.

[6역(사회)02-02] 유물, 유적, 시각자료 등을 통해 초기 제주에 정착한 사람들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고 이를 이용했는지 추론하고 다른 자료들을 찾아 자신의 추론을 입증한다.

[6역(사회)02-03] 역사적 자료, 지도, 그래프, 인구 통계표 등의 인구 자료를 분석하여 제주 지역의 구성원과 그 규모에 대한 일반화를 이끌어 낸다.

(3) 지속과 변화

[6역(사회)03-01] 가정, 학교, 종교, 문화 전통, 직업, 의사소통, 기술 등의 측면에서 과거 제주 생활과 오늘날 제주 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 지속하는 것과 변화한 것을 찾는다.

[6역(사회)03-02] 연표 그리기를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고, 특정 분야의 변화를 진보와 쇠퇴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4) 인과관계

[6역(사회)04-01] 다양한 시각 자료, 픽션, 논픽션, 자원인사 강연 등을 활용하여 제주 지역에 이주한 집단들이 이주해 온 이유를 생각해보고, 제주의 역사에 지리 및 환경이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6역(사회)04-02] 제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역사 행위자들의 행동을 당시 종교, 철학, 주요 신념 체계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5) 역사적 관점

[6역(사회)05-01] 과거 제주에 살았던 다양한 집단들의 구전, 문학, 노래, 예술, 종교, 공동체 의례, 음식, 언어를 살펴보고, 과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 추론한다.

[6역(사회)05-02] 제주 역사의 행위자들이 자신이 관여한 사건들을 어떻게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연령, 성별, 신분, 지역, 종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한다.

(6) 윤리적 판단

[6역(사회)06-01] 제주 역사에 대한 공정한 윤리적 판단을 통해 과거의 기여, 희생, 불의 등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6역(사회)06-02] 과거 제주 공동체 및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현대 기준이 아닌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하고, 과거로부터 직접 교훈을 찾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며 현대 쟁점을 이해한다.

마. 제주의 생활문화

(1) 의식주 생활문화

제주 조상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형성해놓은 의식주 생활문화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제주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6생(사회)02-01] 제주 조상들이 입었던 여러 가지 옷들의 사례와 그 명칭을 조사한다.

[6생(사회)02-02] 제주 조상들이 즐겨 입었던 ‘갈옷’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

에 대해 탐구한다.

[6생(사회)02-03] 제주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들의 사례와 그 명칭을 조사한다.

[6생(사회)02-04] 제주 조상들의 음식문화의 특징을 찾아 오늘날의 음식문화와 비교한다.

[6생(사회)02-05] 제주의 전통 초가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 탐구한다.

[6생(사회)02-06] '정낭'과 '올레'의 형성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2) 가족제도와 권당문화

제주 지역의 고유한 가족제도의 특징과 권당문화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제주의 전통적 가족문화를 이해한다.

[6생(사회)01-01] 제주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특징에 대해 조사한다.

[6생(사회)01-02] 제주 지역의 전통적 가족들이 생활했던 삶의 모습을 설명한다.

[6생(사회)01-03] 권당의 의미를 확인하고 권당문화의 영향을 평가한다.

(3) 수놓음 공동체문화

육지부와 비슷하면서도 제주 지역만의 독특한 형태의 협업과 공동체문화를 이해한다. 공동체문화의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공동체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6생(사회)03-01] 제주의 전통적 마을의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하여 설명한다.

[6생(사회)03-02] 제주의 전통적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했던 마을제 및 명절 때의 미풍양속, 민속놀이 등에 대해 조사한다.

[6생(사회)03-03] '수놓음'문화의 의미와 이것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 탐구한다.

[6생(사회)03-04] 접, 계, 향약 등의 의미와 이것들이 제주 조상들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다.

(4) 해녀문화

제주 해녀들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해녀들의 고된 삶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존중한다. 나아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문화의 가치를 발견한다.

[6생(사회)04-01] 제주 해녀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조사한다.

[6생(사회)04-02] 제주 해녀들이 물질(자맥질)을 통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삶의 방식을 체험해보고 그 소감을 피력한다.

[6생(사회)04-03] 제주 해녀문화의 보존 가치를 인식하고 제주 해녀들의 삶의 의지를 존중한다.

2) 중학교

가. 제주의 자연과 환경

(1) 제주의 위치와 영역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이해하는데 위치가 가지는 중요성을 알고, 제주의 영역을 한반도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9자(지리)01-01] 제주의 지리적 위치와 수리적 위치를 알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9자(지리)01-02] 제주의 영역을 한반도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9자(지리)01-03] 제주의 위치와 영역이 제주의 미래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토론한다.

(2) 제주의 자연환경 개관

제주 자연환경의 특징을 이해하고 형성과정을 설명한다.

[9자(과학)02-01] 화산활동으로 인한 제주 섬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9자(과학/사회)02-02] 제주와 한반도 중부 지역의 식생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를 기후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9자(과학/사회)02-03] 제주에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조사해보고,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 한라산

한라산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한라산의 인문학적 의미를 상상해본다.

[9자(과학)03-01] 화산활동과 관련지어 한라산의 형성과정을 탐구한다.

[9자(과학)03-02] 한라산의 고도별 식생분포를 조사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린다.

[9자(사회)03-03] 한라산이 제주 도민과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사하고 상상해본다.

(4) 오름과 용암동굴

오름과 용암동굴을 통해 제주의 화산지형을 이해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9자(과학)04-01] 오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오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9자(과학)04-02] 용암동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보존 방안을 모색한다.

(5) 곶자왈

곶자왈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설명한다.

[9자(과학)05-01] 꽃자왈의 특징을 이해하고, 제주도 백지도에 분포를 표시한다.

[9자(과학)05-02] 주변에 있는 꽃자왈을 답사하고, 그 곳의 토양과 식생을 기술한다.

[9자(과학)05-03] 지하수 함양과 관련지어 꽃자왈의 가치를 설명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진다.

(6) 제주의 해안

제주 해안지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바다 환경을 보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9자(과학)06-01] 제주 해안지형의 특징을 암석해안과 모래해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설명한다.

[9자(과학)06-02] 제주 바다 환경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바다 환경을 청정하게 보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7) 제주의 국제보호지역

제주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으로 선정된 이유를 알고, 제주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다.

[9자(사회)07-01] 제주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이유를 조사하고, 그 가치를 이해한다.

[9자(사회)07-02] 제주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하고 설명한다.

[9자(사회)07-03]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제주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나. 제주의 신화와 전설

(1) 전설로 연결하는 제주의 자연

제주 전설에 나타난 다양하고 특징적인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 제주의 자연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9신(국어)01-01] 제주 전설에 나타난 산과 오름을 통해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9신(국어)01-02] 제주 전설 속에 등장하는 물과 해안을 통하여 제주인 삶의 터전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2) 신화와 전설에 새겨진 제주의 역사·인물

제주 신화와 전설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와 인물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역사와 인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9신(국어)02-01] 제주 신화나 전설에 나타난 이야기의 시·공간적 변화를 파악하며 제주의 역사를 설명한다.

[9신(국어)02-02] 제주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할극을 한다.

(3) 신화에서 발견하는 제주인의 삶

제주 신화에 반영된 생명관, 저승관, 결혼관, 생산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인의 생활을 설명한다.

[9신(국어)03-01] 제주 신화를 읽고 신화에 반영된 생명관과 저승관에 대하여 토론한다.

[9신(국어)03-02]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제주 신화에 반영된 결혼관의 특징을 분석한다.

[9신(국어)03-03] 제주 신화를 읽고 알게 된 제주의 생산관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의한다.

(4) 신화로 풀어내는 제주의 문화

제주 신화 속에 반영된 창조와 제사 등의 다양한 제주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9신(국어)04-01] 제주 신화를 읽고 창조의 관점에서 문화나 관습에 대한 생각을 말
이나 글로 표현한다.

[9신(국어)04-02] 제주 신화에 담긴 제사의 모습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생각과 느낌
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다. 제주의 말과 글

(1) 듣기/말하기

듣기/말하기의 영역 성취 기준은 공식적, 비공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듣
기/말하기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두어 설정했다. 목적과 맥락
을 고려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듣기/말하기를 수행하고, 듣기/말하기로써 제주어 의
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9말(국어)01-01] 영화나 드라마 속 한 장면을 제주어로 바꾸어 말한다.

[9말(국어)01-02] 제주어로 된 대화를 이해하고, 표준어로 바꾸어 말한다.

[9말(국어)01-03] 제주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내용을 이해한다.

(2) 읽기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은 제주어의 문법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어가
사용된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읽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
다. 읽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어로 표기된 글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제주
어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글 내용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제주어
의 특징을 내면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9말(국어)02-01] 제주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을 읽고 내용을 확인한다.

[9말(국어)02-02] 제주어로 된 작품에 나타난 제주인의 삶을 이해한다.

(3) 쓰기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은 제주어의 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일상의 경험이나 생각을 제주어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쓰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제주어의 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의 경험이나 생각을 짧은 글로 쓰면서 쓰기에 흥미를 갖고 부담 없이 쓰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9말(국어)03-01] 문학작품에 사용된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꾸어 쓴다.

[9말(국어)03-02]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제주어로 글을 쓴다.

[9말(국어)03-03]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제주어로 글을 쓴다.

(4) 문법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은 제주어의 다양한 문법 단위에 관한 이해와 탐구활동을 함으로써 총체적인 제주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음운, 단어, 문장에 관해 이해하고 함께 담화, 어문 규범에 관한 문법 능력을 갖추며, 제주어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데 주안점을 둔다.

[9말(국어)04-01] 제주어 동사, 형용사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9말(국어)04-02] 표준어와 구별되는 제주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9말(국어)04-03] 제주어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라. 제주의 역사

(1) 제주의 선사 문화

제주도 선사 문화의 특징을 한반도 다른 지역의 선사 문화와 비교·분석하여 이해한다.

[9역(역사)01-01] 제주인의 기원과 가장 이른 신석기 문화가 제주 고산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이해한다.

[9역(역사)01-02] 제주도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곳과 오늘날의 중심지와 비교·분석하여 설명한다.

[9역(역사)01-03] 고인돌이 제주도에서는 한반도 다른 지역보다 늦은 초기 철기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2) 탐라시대의 제주

탐라는 2~3세기경에 등장하여 고려에 복속되기 전까지 제주에 존재했던 독립국가임을 인식하고 탐라의 건국과 변천 과정을 전체 한국사와 비교·분석하여 설명한다.

[9역(역사)02-01] 철기 문화가 한반도에 확산되면서 초기 국가들이 등장하는 시기에 제주에도 '탐라'라는 국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파악한다.

[9역(역사)02-02] 탐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용담동 유적 (북쪽 묘역)을 남기고 있음을 설명한다.

[9역(역사)02-03] 삼성신화가 탐라국의 건국신화임을 인식한다.

[9역(역사)02-04] 대외교류 중심으로 생존과 발전을 도모했던 탐라국의 모습을 파악하여 설명한다.

(3) 고려·원에 장악된 제주

고려시대 제주에서 일어난 저항사와 원의 100여 년 간의 지배 속에서의 제주사회

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9역(역사)03-01] 고려의 복속 후 고려 정부의 제주 통치 체제를 살피고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양수의 난 등 탐관오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9역(역사)03-02] 제주에 들어 온 삼별초에 대한 제주인들의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를 설명한다.

[9역(역사)03-03] 삼별초 항쟁 실패 후 100 여 년간 제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권력이 원이었음을 이해한다.

[9역(역사)03-04] 제주에 대한 원의 지배정책과 제주의 목축과 불교문화를 설명한다.

(4) 3읍에 파견된 조선의 지방관

조선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속에 흡수되어 잦은 왜구의 침입, 진상품 등으로 1인 10역을 강요받았던 제주인의 삶과 출륙금지령 등으로 발전의 기회를 차단되었음을 파악한다.

[9역(역사)04-01] 왜구침략방어지로서 제주에 설치된 방어시설과 여성도 군역을 담당했음을 이해한다.

[9역(역사)04-02] 말, 미역, 전복, 감귤, 약재 등 진상품 징수로 1인 10역의 고통을 당했던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여 설명한다.

[9역(역사)04-03] 200여 년 동안 '출륙금지령'으로 제주가 섬으로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되고 과거 제주인들의 항해술과 선박제조 기술이 단절되었음을 인식한다.

[9역(역사)04-04] 19세기 한국사에서 보이는 민란이 제주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재수 난을 중심으로 당시 제주인의 삶과 저항을 파악하여 설명한다.

(5) 1만 8천신의 고향

자연적 재해, 중앙 정부의 착취, 왜구의 침입 등으로 고단했던 제주인의 삶을 파악하고 무속신앙을 중심으로 이어 온 마을 공동체를 조명하여, 오늘날까지도 생명성을 지니고 있는 제주 무속신앙의 가치를 인식한다.

[9역(역사)05-01] 정치적 고통과 함께 바람·물·가뭄의 三災가 자주 일어나 제주인의 삶이 고단했음을 이해한다.

[9역(역사)05-02] 김만덕과 김광종의 의로운 삶을 조명하여 그 가치를 설명한다.

[9역(역사)05-03] 잡곡에 해초류, 어패류, 채소 등을 섞어서 밥이나 죽 혹은 범벅을 만들어 먹었던 제주 음식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한다.

[9역(역사)05-04] 마을 수호신을 모신 본향당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를 공유했음을 이해하고 남신보다 여신이 많은 것과 현재에도 살아있는 당이 많다는 사실의 의미를 파악하여 설명한다.

(6) 일제강점기 제주인의 삶과 저항

일제의 식민정책과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과 정체성을 파악한다.

[9역(역사)06-01] 일제의 통치기구와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식민 정책을 파악하여 설명한다.

[9역(역사)06-02] 출가 노동, 항일운동 등을 조명하여 당시 제주인의 삶과 정체성을 파악한다.

(7)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주 4·3

제주4.3을 중심으로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의 현대사를 살피고 4.3과 같은 야만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파악하여 설명한다.

[9역(역사)07-01] 1945년 8월15일 해방은 38선으로 분단된 채 미.소 양군이 한반도를 장악했던 불완전한 해방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9역(역사)07-02] 해방 직후 우리민족의 독립국가 건설 운동과 미군정의 정책을 파악한다.

[9역(역사)07-03] 3.1절 행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건국강령'을 민주주의 사회 모습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9역(역사)07-04] 제주4.3을 제주인들의 저항과 대량학살의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제주4.3의 성격과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을 바르게 인식한다.

[9역(역사)07-05] 제주가 평화.공존의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4·3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8) 민주화 운동과 제주4.3 진상규명

제주 4·3 이후 반공이데올로기의 억압 속에서도 무너져 버린 마을을 지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했던 제주인들의 삶을 조명하고 제주에서의 민주화 운동 과정을 파악하여 제주 4·3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제주사회의 동력을 파악한다.

[9역(역사)08-01] 토산리 모자상, 하귀리 영모원 등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4.3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을 생명이 존재하는 삶의 공간으로 재생시킨 제주인의 삶을 조명하여 설명한다.

[9역(역사)08-02]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제주의 민주화 움직임을 파악하여 설명한다.

[9역(역사)08-03]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 제주4.3의 진상 규명이 가능했음을 인식한다.

(9) 우리 마을(학교) 역사 쓰기

과거 자기 주변 사람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무엇이 역사가 되어 전해지는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게 된다.

[9역(역사)09-01] '나의 역사 쓰기'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색 과정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9역(역사)09-02] 마을의 역사를 리플렛으로 만든다.

[9역(역사)09-01] 현재 우리 마을의 모습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우리 마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한다.

마. 제주의 생활문화

(1) 의식주 생활문화

제주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문화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제주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존중한다. 의식주 생활문화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끼친 요인들을 발견함으로써 문화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를 인식한다.

[9생(일사)02-01] 제주 조상들이 입었던 다양한 의복양식을 열거하고, 그것들의 특징을 설명한다.

[9생(일사)02-02] 제주 조상들이 즐겨 입었던 '갈옷'의 제작과정을 조사하고, 그것을 즐겨 입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9생(일사)02-03] '물옷', '우장옷', '가족옷' 등의 의미와 그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입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9생(일사)02-04] 제주 조상들이 일상적으로 먹었던 주식과 부식의 사례들을 조사한다.

[9생(일사)02-05] 제주 조상들의 식사방식의 특징들을 열거한다.

[9생(일사)02-06] 제주 전통의 민가와 육지부 전통의 민가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9생(일사)02-07] 제주 전통 민가의 모습과 여러 특징들을 조사하여 그림으로 묘사한다.

(2) 가족제도와 권당문화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제주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비교.설명하고, 제주 지역의 고유한 권당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9생(일사)01-01]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제주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9생(일사)01-02] 제주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그 형성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9생(일사)01-03] 제주의 전통적인 권당문화의 의미와 그것이 초래한 장.단점에 대해 평가한다.

(3) 수놓음 공동체문화

육지부와 비슷하면서도 제주 지역만의 고유한 형태의 협업과 공동체문화를 형성시킨 배경을 파악한다. 제주의 전통적 공동체문화의 구체적 사례들을 학습함으로써 공동체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9생(일사)03-01] 제주의 전통 마을이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고 전통 마을의 구조에 대해 조사한다.

[9생(일사)03-02] 제주의 전통적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했던 마을제 및 명절 때의 미풍양속, 민속놀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설명한다.

[9생(일사)03-03] '수놓음'문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게 된 제주의 자연적 여건과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탐구한다.

[9생(일사)03-04] 수놓음의 또 다른 형태인 접, 계, 향약 등의 의미와 그 형성 배경, 그리고 이것들이 끼친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4) 해녀문화

제주 해녀들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 나아가 제주 해녀문화가 왜 소중하고 보존가치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9생(일사)04-01] 제주 해녀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해녀들이 활약했던 국내외의 다양한 지역에 대해 조사한다.

[9생(일사)04-02] 제주 해녀들이 물질하는 삶의 방식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소감을 피력한다.

[9생(일사)04-03] 제주 해녀들의 항일운동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조사한다.

[9생(일사)04-04] 제주 해녀문화의 특징과 그 보존가치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해녀문화의 소중함을 발견한다.

6. 교수-학습 방법

제주이해 교육의 수업은 학생들의 인지적·사회심리적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학교급별·교육영별로 고려하고, 수업의 목표와 성취기준, 그리고 내용에 따라 알맞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제주이해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교수-학습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 주제에 따라 교사 중심의 강의법, 문답법, 시청각매체 활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제주이해 교육은 학생 중심의 탐구식 교수-학습 방법과 기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토의·토론법, 논술법, ICT활용법, 협동 학습법, 역할놀이법, 실천·체험학습법 등 다양한 탐구식 수업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중핵교육과정으로 제주이해 교육은 제주도내 학습자들이 우리 주변의 사회·자연 환경에 관심을 통해 각 교과와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교수-학습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찾는 프로젝트 학습법이나, 도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탐방이나 견학 등 직접 체험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을 권장한다.

제주이해 교육을 위한 이러한 일반적 교수-학습 방안 이외에 각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상의 중점 사항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주의 자연과 환경

- (1) 제주의 자연과 환경과 관련된 단순 사실의 암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통해 학생이 이미 터득하고 있는 기존 지식과 인지 구조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한다.
- (2) 지리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야외 현장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답사 및 여행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학생 스스로 지리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 제주의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지도화, 도표화, 쓰기, 읽기, 말하기 등을 통해, 지리적 사고를 표현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4) 학생들이 제주의 지리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지역 학습 자료를 제시한다.

2) 제주의 신화와 전설

- (1) 제주의 이야기를 비롯한 제반 전통문화를 통해 제주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우선 교실에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2)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문화의 해설사, 전도사가 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 예로 영상 블로그를 제작하여 공개하는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 (3) 공통적으로 다룰 주제와 학교마다 달리 할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조사, 문헌조사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게 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주제는 제주 신화, 전설을 비롯한 구전은 물론 전통문화 전반,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온갖 모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팀내, 학교내에서 먼저 공유하여 평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일반에 공개하는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

- (4) 텍스트 블로그를 병행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영상 제작과정에 텍스트를 전달하는 학생들을 함께 참여하게 하되, 영상 제작이 끝나면 그 과정과 결과를 텍스트 블로그를 작성하여 공유하게 하도록 한다.
- (5) 이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신화와 전설을 읽어보고 토의하기
 - 본향당, 해신당 등을 탐방하기
 - 제주신화와 한국신화, 로마그리스신화 등과 비교하여 읽어보기

3) 제주의 말과 글

- (1) 다양한 실천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어로 말하기, 제주어로 글짓기, 제주어로 연극하기, 제주어로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2) 제주어로 말하기 주간, 제주어 사용 구역 등도 운영해 볼 수 있다.
- (3) 중학교 이상에서는 제주어의 전반적 특성에 대해 교사 중심의 인지적 접근, 학생 중심의 조사발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제주어를 잘하는 어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한 제주말 배우기를 할 수 있다. 제주방언 전승을 위하여 경로당과 학교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방언세대와 비방언세대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떤 교육방법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 제주의 역사

- (1) 역사 학습은 과거 사실을 다루는 과정에서 진위 여부 확인, 자료 비판, 상반된 견해의 비교 등 다양한 지적 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주변의 초보적 수준에서 활동 학습을 제시하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역사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역사 개념을 익히고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 (2) 초·중학생들에게 많은 사실과 개념을 기억하도록 하거나, 사료를 분석하는 것은 지양하고, 학습 목표에서 제시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사례를 찾도록 하거나 사례

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 (3) 과거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 (4) 우리고장, 우리나라, 세계의 역사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발전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 (5) 교수·학습 방법은 강의식 수업, 역할극, 사료 학습, 인물 학습, 극화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강의식 수업이나 사료 학습을 통해 지식과 개념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역할극은 역사적 추체험을 유도할 수 있다. 시사 토론, 극화 학습과 같이 수업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은 교사가 철저한 계획 아래 시행하도록 한다.

5) 제주의 생활문화

- (1) 제주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위하여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한다.
- (2)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주제와 문제를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3)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탐구 상황을 설정하고,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한다.
- (4) 모둠별 협동 학습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 참여 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정의감, 협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5) 질문, 조사, 토의·토론, 관찰 및 면담, 현장 견학과 체험, 역할 놀이와 시뮬레이션 게임, 사회 참여, 사료 학습, 제작 학습, 추체험 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 방법을 학습 내용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게 활용한다.
- (6) 학습자가 스스로 사회문제나 쟁점을 탐구하거나 가치를 분석하는 기회를 갖도록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시사 자료와 지역 사회 자료를 활용한다.

7. 평가 및 활용

1) 교육평가

(1) 제주이해 교육은 별도의 교과로 편성·운영되지 않기에 제주이해 교육이라는 지필평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단, 각 교과에서 제주이해 교육이 제안하는 영역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시간에 활용할 경우 이 내용을 지필평가로 확인할 수 있다.

(2) 제주이해 교육에 대한 평가는 2015 교육과정이 권고하는 과정평가에 초점을 두고 수행평가의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행평가는 대표적으로 관찰기록 평가, 포트폴리오, 토론 및 발표, 조사보고서 등의 평가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활용방안

(1) 평가결과는 학생들의 제주이해 및 정체성을 형성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2) 평가결과는 성취기준의 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교수-학습의 개선 및 교사의 자기 평가와 자율 장학에 활용한다. 나아가 학생들의 제주이해 및 제주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을 돕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연구진 ▣

구분	연구자		
	교수 및 연구가	초등교육전문가	중등교육전문가
교육과정 총론	강봉수(제주대학교 사범대, 책임연구원) 김대영(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하 공동연구원)		
제주의 자연과 환경	김태호(제주대 사범대) 손명철(제주대 사범대)	김보영(한천초)	김희선(저청중)
제주의 신화와 전설	현승환(제주대 사범대) 송현정(제주대 사범대)	양재성(애월초)	강순희(제주중)
제주의 말과 글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신우봉(제주대 인문대)	장혜순(토산초)	윤지환(귀일중)
제주의 역사	박찬식(제주학연구센터) 류현종(제주대 교육대)	김기범(덕수초)	하명실(전교사)
제주의 생활문화	좌혜경(제주학연구센터) 김일방(제주대 사범대)	박상현(수원초)	김홍탁(귀일중)
연구 보조	현민철(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보조원)		